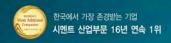
CEMENT

www.cement.or.kr 2020 1 (8.3) vol. 224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



5012126-11 3-11E-1

당신께 첫 편지를 띄웁니다.
저의 이름을, 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늘 저는 당신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
당신이 힘들어 기대고 싶을 때나
앉고 싶고, 때로는 눕고 싶을 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도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일시멘트'입니다.



CONTENTS

2020 Vol.224



인트로

02 Issue

시멘트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정책방안

04 KCA News

협회 주요 행사 스케치

06 Special ①

2020년 경제·산업 전망

14 Special ②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산업 & 정보

18 Focus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22 Global Report

글로벌 시멘트산업 동향

28 Industrial Report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 & 문화

38 Trend

동네북 시멘트업계, 자기 PR이 필요하다

40 Zoom in

시멘트家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54 Tour

나만 알고 싶은 쑥섬의 비밀정원, 애도

뉴스 & 정보

58 Membership News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소식/회원사 인사동정

73 Statistics

시멘트산업 관련 통계

계간 「CEMENT」 통권 제224호 한국시멘트협회

발행인 겸 편집인 이런준 발행치 한국시멘트협회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역삼동 837-26 삼일플라자 16층) 전화 02-538-8230 팩스 02-538-1720 문의 홍보관리파트(02-538-8237) 인터넷 www.cement.or.kr 디자인 (주)매김바이어스가이드(02-558-4913)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시멘트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정책방안

글 /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시멘트업계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3.9백만톤의 배출권이 부족하여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약 830억원을 부담하였다. 또한 시멘트가격에 대비하여 계속 오름세를 이어 가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최근 들어 톤당 4만원을 넘어서 제품가격 대비 배출권가격이 약 66%에 이르렀다. 배출권가격은 2018년 12월 가격 대비 75% 상승한 것이며, 배출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배출권을 구입해야하는 기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배출권 가격이 더욱 상승할까 우려된다.

정부는 참여업체들이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을 명확히 파악할 할 수 없어서 거의 거래가 없이 기세로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동안 배출권 물량은 시장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행년도 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따라 2019년 배출량 정산 시점인 2020년 6월 경에는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므로 지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중에 배출권 수량이 충분한 데도 기업들이 잉여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로 초과 보유 물량이 나오면 배출권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배출권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시장 기제에 따라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며, 이에 배출량이 감소하여 배출권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왜 배출권 잉여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여 이월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선 배출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이래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초기에 톤당 1만원 수준에서 최근 4만원까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및 2019년에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36백만톤으로 2017년 배출량 709백만톤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부터 도입하는데 감축이 점차 강화되면서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점차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미래의 감축비용 상승에 대비하여가능한 배출권을 많이 확보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발전 공기업들의 행태도 한 몫 한다고 볼수 있다. 발전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배출권 구입비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품 가격, 즉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전량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가격의 3배 또는 톤당 10만원의 미이행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감축의무 미이행은 감점요인이 되어 임직원의 성과급이 영향을 주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 공기업이 느끼는 배출권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이며, 가격에 관계없이 배출권을 무제한 매입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에 특정 발전 공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절반 이상의 배출권을 구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세 번째, 한국의 기업들의 한계감축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 시멘트생산업체 및 주요 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주요 수출상품들은 생산량당 에너지원단위가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대규모 투자를 요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감축비용이 매우 높은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더 적용할 감축기술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소위말하는 '마른 수건 짜기'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한국의 배출권시장은 참여자 수나 규모가 너무 작아 가격 급등락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의 경우 약 1만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고작 600여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이며, 이중 일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거래되는 배출권 수량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배출권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으며, 가격도 요동칠 수 있다. 정부는 예비분 운영, 잉여분 이월 제한조치 등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 과열 또는 급랭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수정 감축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일부 감축수단(CCUS, 철강 수소환원기술 등)도 감축비용이 매우 높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시멘트산업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는 CCS, 저탄소시멘트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경제성 및 기술개발의 한계로 지속적인 연구투자 없이는 적용시점이 불투명하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배출은 경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배출권 가격도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건설경기 변동 등 외부요인에 의해 시멘트수요가 변동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배출권 가격의 급등과 배출권 부족현상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하용량이 다소 변동되더라도 지나친 가격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배출 원단위 목표 설정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변수를 무시한 절대량 기준 할당방식은 경기가 좋은 때에는 배출권 초과수요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초과공급을 야기한다. 따라서 배출권 가격은 경기 상황에 따라 매우 심한 등락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실가스가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현 기술수준에서 감축투자를 늘려도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 적정한 투자를 하면 감축할 수 있다. 반면, 온실가스의 경우는 감축에 한계가 있으며 공정배출의 비중이 큰 시멘트산업의 경우 타산업보다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제한되어 최후의 수단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배출권가격이 경기에 따라 급등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기변동이나 생산 활동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방식 및 배출권 할당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배출권 가격 상한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여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기업체는 상한가격에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무제한 구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한 가격은 일종의 탄소세 같은 역할을 하며,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국가 온실가스 배출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기 활황기에 배출권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배출권 초과 판매수입을 여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행 연도별 배출권을 구분하는 지표 배출권제의 폐지, 상쇄배출권 활용에 대한 제한 완화,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등 감축여력이 부족한 시민트업종 및 타업종 기업들이 시장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현준 쌍용양회공업(주) 대표, 한국시멘트협회장에 재선임



한국시멘트협회장으로 재선임된 이현준 쌍용양회공업(주) 대표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월 19일 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현준(李鉉神) 現 쌍용양회공업(주) 대표를 한국시멘트협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현준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쌍용양회에 입사한 이래 경영기회, 물류, 생산공장, 법무, 홍보, 감사 등 주요 부문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2017년 대표집행임원에 선임된 후 지난해에는 대표집행임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적극적인 소통으로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지난 2018년 6월, 제30대한국시멘트협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지역별 건설경기 양극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3년 연속 시멘트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및 대기관리권역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등 전방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원가상승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물류비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이현준 회장이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협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며 "상시적인 수요 감소 상황 하에서 우리 시멘트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행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영여건이 개선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0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월 9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시멘트업계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멘트 수요의 감소세가



신년사를 낭독 중인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등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일감정 악화속에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의 급등으로 인한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의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를 지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금년 말에는 업계 모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우 지혜롭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훌륭한 통찰력과 생존능력을 갖는 흰쥐의 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상호 덕담을 나누며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력하고 공동의 발전을 통해 당면 목표를 달성하자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



2020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 기념촬영



2020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권의 성장 둔화와 중국 등 개도권의 성장 부진 속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에 그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세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부진이 지속되지만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2.3% 성장물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산업연구원의 '2020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및 산업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대외여건 전망

2020년 세계경제, 전년수준 성장 전망

2020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성장 둔화와 개도권의 성장 부진 속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미국은 재정정책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데다 주요국들과의 무역분쟁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 투자 등이 둔화되면서 성장률도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과 유로권은 경기 반등을 위한 모멘텀 부재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수 여건의 약세 영향으로 6% 미만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제조업 경기의 회복 여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중통 정정 불안, 미국 대선의 전개 양상, 브랙시트 등) 등이 꼽힌다.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견년동기대비(건기대비연율)

7.8		2018년			2019년		11	/F	OE	CD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세계			3.6			54-4-1	3.0	3.4	2.9	3.0
선진권	2.8	2.0	2.4	1.7	1.6	9	1.7	1.7	- 8 -	T_FC
미국	2.8	3.0	2.9	2.7(3.1)	2.3(2.0)	2.0(1.9)	2.4	2.1	2.4	2.0
일본	1.4	0.2	0.8	0.9	0.9	1.3	0.9	0.5	1.0	0.6
유로	2.3	1.4	1.9	1.3	1.2	1.1	1.2	1.4	1.1	1.0
개도권			4.5	1=3==			3.9	4.6	D 2510	100
중국	6.8	6.5	6.6	6.4	6.2	6.0	6.1	5.8	6.1	5.7
세계교역	J-07 15		3.6			7 7 7 7 7	1.1	3.2	08	1 1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10월),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9월).

국제유가, 배럴당 62달러 수준 예상

2020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연장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중산 기조가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나, 수요 측면에서 하반기에 세계경기가 개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나아지면서 2019년과 비슷한 배럴당 연평균 60달러대 초반 수준이 예상된다. 두바이유 기준 2020년 유가는 상반기 배럴당 60.0달러(전년동기대비 8.4% 하락), 하반기 64.8달러(전년동기대비 8.2% 상승)로 연평균 62.4달러(전년동기대비 0.5% 하락)가 예상되다.

(2020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7.8		2019년		2020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65.5* (-3.8)	59.9 (-15.5)	62.7 (-9.8)	60.0 (-8.4)	64.8 (8.2)	62.4 (-0.5)	

자료: 산업연구원

주:()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기준, 단위 %, *는 실측치

원/달러 환율, 2019년 수준 유지할 듯

2020년 원/달리 환율은 전반적인 하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의 등략을 거듭하면서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경제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중국경기 둔화가 위안화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어 달러화 강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일 무역긴장 속에서 불확실성 중대 및 제조업 경쟁력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한 국내 주요 지표들(수출, 내수, 무역수자)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미국경기의 침체 우려감 증대와 함께 미국 대선 전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달러화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175원(전면동기대비 25% 상숙), 하반기 1,160원(전면동기대비 2.4% 하락)으로 연평균 1,168원(전면동기대비 0.01% 상숙)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원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46.6 (6.6)	1,188.1 (5.6)	1,167.4 (6.1)	1,175 (2.5)	1,160 (-2.4)	1,168 (0.01)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기준, 단위 % | 2) 2019년 하반기는 2019년 11월 현재 기준

2020년 국내경제 전망

국내경제 연간 2.3% 성장 전망

2020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세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전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증가세의 완만한 흐름 속에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2,3%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2019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경제의 둔화세 진정,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마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소비가 전년 수준의 중가율에 그칠 것이 예상지만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정부 정책효과로 인해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건년동기대비, %, 억달러

2.0		2019년			2020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1.9	2.1	2.0	2.2	2.3	2.3
민간소비	2.0	1.9	2.0	1.9	2.1	2.0
건설투자	-5.4	-2.3	-3.8	-2.1	-1.5	-1.8
설비투자	-12.2	-1.7	-7.0	2.9	4.1	3.5
통관 수출(억달러, %)	2,712(-8.6)	2,746(-10.9)	5,458(-9.8)	2,753(1.5)	2,844(3.6)	5,597(2.5)
통관 수입(억달러, %)	2,525(-4.9)	2,518(-6.6)	5,043(-5.8)	2,570(1.8)	2,640(4.8)	5,210(3.3)
무역수지	187	228	415	183	204	387

자료:산업연구원

한편 2020년 국내경제의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마찰 심화 여부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 신흥권의 정치적 불안정성 지속 여부 등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영향과 정부 정책 효과의 발현 여부, 제조업 경기의 화복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전년수준 증가세 예상

2020년 민간소비는 고용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데다 저금리 지속, 대외 불확실성 완화 등의 긍정적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어 전년 수준의 증가세^(2%)가 이어질 전망이다. 마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 완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각종정책, 저물가에 의한 실질소득 상승,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 등은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C11. M LLC		
		2019년		2020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2.0	1.9	2.0	1.9	2.1	2.0		

자료: 산업연구원

설비투자 3.5% 증가, 건설투자 1.8% 감소 전망

설비투자는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2분기부터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설비투자는 전년의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경기 및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기계 업종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정책으로 투자 증가세가 예상된다.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의 증가율은 0에 근접하여 횡보하고 있어 설비투자가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설비투자는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4.1% 증가가 예상되면서 연간 전체로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추이〉

단위:%

	н			2018년	2019년				
7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1)
	설비투자	10.2(4.3)	-4.3(-8.4)	-9.4(-4.0)	-5.3(3.2)	-2.4	-17.4(-9.1)	-7.0(3.2)	-2.7(-5.2)
전년 동기비	기계류	11.2(-0.5)	-2.5(1.6)	-13.6(9.2)	-14.4(12.1)	-5.0	-21.7(-5.0)	-13.3(-0.4)	-
0,1-1	운송장비	6.8(5.7)	-9.6(-11.1)	8.1(-7.9)	23.4(0.1)	6.7	0.1(-19.5)	12.2(13.9)	*

자료: 한국은행

주:()안은 계정조정계열의 전기대비 증감률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에도 부동산 규제정책 등의 여파로 의미 있는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확장예산 기조 속에 토목건설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감소폭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건설투자는 2020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1.5% 감소하면서 연간 전체로 전년^(-3.8%)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든 -1.8%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추이〉

단위:%

	э н			20	18년			2019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1
5 A)	건	설투자	1.2	-2.5	-8.7	-5.7	-7.2	-3.5	-3.0
		건물건설	3.3	-1.1	-8.6	-6.8	-7.6	-5.9	-
	SICILH	주거용 건물	5.6	-2.0	-4.7	-6.7	-12.0	-12.6	-
전년 동기비	형태별	비주거용 건물	0.3	-0.1	-12.5	-6.8	-1.6	1.5	100-0
		토목건설	-4.6	-6.3	-9.0	-3.1	-6.0	2.9	
	주체별	민간	2.8	-4.8	-8.2	-8.0	-7.6	-7.3	10 -
		정부	-6.9	4.9	-11.5	3.0	-4.5	7.7	-
	건	건설투자		-2.5	-6.0	1.8	-0.8	1.4	-5.2
		건물건설	0.2	-2.4	-5.5	0.7	-0.7	-0.6	-
	#JPUH	주거용 건물	1.7	-4.6	-1.0	-2.9	-4.5	-4.8	-
전기비	형태별	비주거용 건물	-1.4	0.1	-10.4	5,1	3.7	3.8	-
	1	토목건설	2.9	-2.8	-7.4	5.1	-1.2	6.9	line.
	スが出	민간	1.8	-4.9	-4.6	-0.7	1.9	-3.5	-
	주체별	정부	-3.1	8.4	-11.3	12.8	-11.2	22.6	-

자료:한국은행 주:1)은 잠정치

수출입, 소폭 증가 예상

2020년 수출은 2019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경제의 둔화세 진정,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마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2.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2019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의 증가세 전환 등으로 2020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경제의 낮은 성장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회복의 강도가 크지 않아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014		2019년		2020년				
구 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6,049(5.4)	2,712(-8.6)	2,746(-10.9)	5,458(-9.8)	2,753(1.5)	2,844(3.6)	5,597(2.5)		
통관기준 수입	5,352(11.9)	2,525(-4.9)	2,518(-6.6)	5,043(-5.8)	2,570(1.8)	2,640(4.8)	5,210(3.3)		
무역수지	697	187	228	415	183	204	387		

자료: 산업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한편 무역수지는 흑자 규모가 2020년 379억달러로 2019년(415억달레)보다 줄어들고,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되더라도 무역규모는 2018년 수준(11,452억달레)에 못 미칠 전망이다.

2020년 주력산업 전망

주력산업 수출, 반도체 제외하고 부진 지속

2020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진정되고 메모리반도체의 단가 및 시장 안정화 등에 힘입어 2019년 12.1% 감소에서 2020년 2.3%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달러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11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2020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0.5%로 부진을 지속한 이후 하반기부터 전년동기대비 1.6%로 반등하여 연간으로는 0.6% 증가함으로써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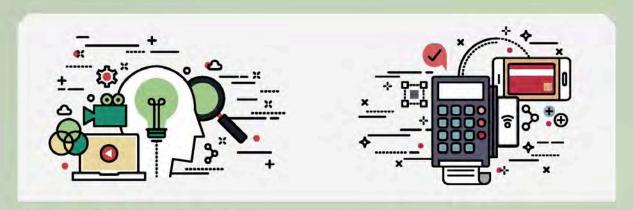
기계산업군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조선과 일반기계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9년 0.3% 감소에서 3.8%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에서는 국제유가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단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속에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9년 11.3% 감소에서 2020년 2.1% 감소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IT산업군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안정화되고 이차전지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며 2019년 전년대비 21.2% 감소에서 2020년 4.7%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산업 생산, 대부분 산업에서 회복세 미흡

12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수출 및 내수 회복 기조가 약하여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회복세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조선은 수주물량 확대, 일반기계는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정유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나 석유화학 및 섬유 생산이 줄어들어 소재산업군 생산은 전년 대비 소폭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군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이차전지 생산이 호조를 지속하는 반면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는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산업 내수, 뚜렷한 상승동력 부재로 더딘 회복세

2020년 12대 주력산업의 내수는 낮은 소비 및 투자 증가 전망으로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군의 내수는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기저효과 및 신제품·첨단화 장비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정유 및 섬유분야의 내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은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군의 경우 디스플레이 및 가전의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의 내수증가에 힘입어 전체 IT산업의 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제,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주력산업 수입,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기계산업과 IT산업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주력산업의 수입은 2019년 전년 대비 1.5% 감소에서 2020년 3.8%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산업연구원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기계산업군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기 부문의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 전년 대비 3.6% 감소에서 2020년 5.0% 확대가 예상된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석유계열 제품의 수입단가 하락 및 중저가 수입제품 수요확대로 소재산업의 수입은 2019년 5.8% 감소에서 2020년 0.9% 증가가 전망된다. IT산업군의 수입은 중저가 중국산 제품과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5G 등 신산업 대응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2019년 전년 대비 3.5% 증가에서 2020년 5.5%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산일	전망 기상도〉		단위:%, 전년동기다
- 5	P 분	수출	생산	내수	수임
	자동차	-		\$	⇔
기계 산업군	조 선	\$\$	۵×	\$\$	44
COL	일반기계	Φ	8	8	0
소재	철 강	*	0	*	0
	정유	C >	\triangle \trian	05	
산업군	석유화학	†	*		
	섬유	44	46	Φ	0
	가 전	-			0
IT 제조업군	정보통신기기	4		8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이차전지	₩	⇔	\$\$	\$\$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천망: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5%--10,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한편 2020년 글로벌 여건은 세계경제의 둔화세 진정, 반도체시장 안정, 제품단가 혼조세, 국가 간 통상마찰 지속, 경쟁심화 등 호재와 약재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낮은 증가세, 건설투자 부진 지속, 국내 생산기반 약화,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이 이어지면서 2020년 국내 시장 여건의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주 6% 감소, 건설투자 2.5% 감소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회)은 지난 2019년 11월 5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0% 감소한 140조원에 머물러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전국 매매가격이 0.8%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1.0% 하락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여기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2020년 건설경기 전망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0% 감소한 140조원에 머물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0% 감소한 140조원에 그쳐 2017년에 시작된 건설수주 감소세가 2020년까지 4년 연속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2020년 수주액 전망치 140조원은 2014년 107.5조원 이후 6년 내 최저치이다.

2020년 수주감소 원인은 공공 수주가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민간 수주가 주택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7.8		2017년		0	2018년			2019년	LIZ	2020(e)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	주액 (조원, 당하	년 가격)				
공공	21.9	25.3	47.2	17.2	25.1	42.3	18.5	26.6	45.0	48.9
민간	56.3	57.1	113.3	54.2	58.0	112.2	53.6	50.3	103.9	91.1
토목	23.2	18.9	42.1	21.4	25.0	46.4	21.7	24.9	46.6	48.9
건축	55.0	63.4	118.4	50.0	58.1	108.1	50.4	51.9	102.3	91.1
주거	31.1	37.4	68.5	25.5	31.0	56.5	27.1	26.9	54.1	46.8
비주거	23.9	26.1	49.9	24.5	27.1	51.6	23.3	24.9	48.2	44.3
계	78.2	82.3	160.5	71.4	83.1	154.5	72.1	76.8	148.9	140.0
				증김	률 (%, 전년 동	기비)			10.0	
공공	17.3	-12.0	-0.4	-21.4	-0.7	-10.3	7.0	5.8	6.3	8.7
민간	11.8	-15.0	-3.5	-3.7	1.6	-1.0	-1.0	-13.3	-7.4	-12.3
토목	42.7	-13.8	10.3	-7.9	32.3	10.2	1.5	-0.3	0.6	4.9
건축	4.2	-14.2	-6.5	-9.0	-8.4	-8.7	0.7	-10.7	-5.4	-10.9
주거	0.2	-16.8	-9.8	-18.0	-17.1	-17.5	6.3	-13.1	-4.3	-13.3
비주거	9.8	-10.1	-1.6	2.8	3.9	3.4	-5.2	-8.0	-6.7	-8.2
계	13.2	-14.1	-2.6	-8.7	0.9	-3.7	0.9	-7.6	-3.6	-6.0

자료:대한건설협회

주: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2019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2.5% 감소하며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감소세는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별로는 토목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반면, 주거용 건축^(주백) 투자를 중심으로 건축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0년 건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은 "2020년 건설투자 감소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0.36%p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7.2만명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와 고용에 대한 건설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조원, 전년 동기비%

3 H		2017년			2018년			2019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	132.81	150.12	282.93	131.54	139.32	270.86	124.81	135.24	260.05	253.49
증감를	10.1	4.9	7.3	-1.0	-7.2	-4.3	-5.1	-2.9	-4.0	-2.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호.

주: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2020년까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완충 역할이 과거와 달리 미흡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즉 2018년부터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빠르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정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 급감하고, 2019년에도 4% 증가하는데 그쳐 민간 건설경기 하락에 대한 공공부문의 완충 역할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정부 SOC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9%, 생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9.8% 증가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 설계 등 착공 전 절차를 감안할 때 건설투자 증가에는 일정 수준 시차가 존재해 2020년 건설경기 하락 완충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정부 SOC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하지만, 예산액은 22.3조원으로 2018~2019년의 극심한 부진을 벗어나는 수준에 불과(실질금액 기준으로는 2017년 미탈)한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SOC 예산을 2015년 수준인 25조원 내외로 중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등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급락세를 막을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부동산 규제의 수위 조절, 지방 주택시장 지원책을 통해 주택투자의 급락세 조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매매가격의 경우 2020년 수도권 0.3%, 지방 1.2%, 전국 0.8%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신규 주택취득 및 교체 수요 발생해 올해보다 하락폭이 줄여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의 완화적 금리정책을 근거로 들어 "2020년은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덧붙여 "악화되는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저금리시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강해 때매가격 하락폭은 전년 대비 문화될 전망"이라 밝혔다.

(2020년 주택가격 전망)

단위:전기말대비,%

	н	201714	201014			2019년		1 1	2020(#4)
구분		2017년	017년 2018년 -		2/4분기	3/4분기	4/4분기e)	연간e)	2020년e)
전국		1.5	1.1	-0.4	-0.5	-0.1	0.1	-1.0	-0.8
OHOH	수도권	2.4	3.3	0.5	0.5	0.2	0.4	-0.4	-0.3
	지방	0.7	-0.9	-0.4	-0.5	-0.4	-0.2	-1.7	-1.2
전세(전국)		0.6	-1.8	-0.7	-0.7	-0.3	-0.2	-1.9	-1.0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018년 4분기와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지방 시장은 어려움이 수년간 계속되어 미분양 주택이 누적된 상황이다. 주택 구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빠르게 줄면서 재고를 소진해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나아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20년 준공 물량이 전년에 비해 더 줄어들면서 누적된 재고를 소진해 시장 변동성과 하락폭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 시장의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이 시장의 기초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 시장,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및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유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1.0% 하락이 예상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시장 진입 유인이 있지만 그 요인이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2020년 분양물량은 공공물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민간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의 경우 전년 대비 2.2% 내외 감소한 45만호가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감소폭이 큰 민간 인허가는 수요가 저조해 2019년에 이어 한 차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전망)

단위: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525,467	469,058	311,913	311,913	300,000	270,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9~202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2020년 주택 인허가 전망)

단위: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765,328	726,048	653,441	554,136	460,000	450,000
공공부문	76,428	75,802	76,629	81,082	80,000	90,000
민간 부문	688,900	650,246	576,812	473,054	380,000	360,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9~202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종합하면 2020년은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더욱 심각해질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긴요함과 동시에 기업들은 기존 분양형 모델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 구상해야 할 때"라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 SOC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요예측실패로 인한 재정 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보고서를 통해우리나라 SOC의 변화에 따른 생활 SOC의 대두 이유,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우리나라 SOC의 변화와 생활 SOC의 대두

대규모 SOC에서 사람 중심 SOC로 패러다임 전환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번역돼 표현되며 '국민의 경제활동·성장의 바탕이되는 자본과 시설물'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SOC는 우리나라의 SOC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논거를 제공해왔는데 이로 인해 생활 SOC 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대규모 SOC사업은 1950년 전후 복구 이래 경제성장 단계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으며 국가 주도로 산업 중심지 개발을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의 시설 위주의 사업에 집중되었다.

정부에서는 SOC 스톡(stock)이 상당 수준 누적됐다는 판단 아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관·도서관·병원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소규모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환경안정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구분	대규모 SOC	생활 SOC	
목표	자원·물류의 관계망 구축	사회 관계망 구축	
주요사업 도로·철도·항만·공항·산업단지		체육관·도서관·병원 등 생활 전반	
추진 방식 BTO·BTL(수익형·임대형 민간투자)		BTL(임대형 민간투자) 위주	
사업 주체 국가, 국가 + 민간		국가 + 민간 + 국민	
사업 효과	전후 복구, 경제성장, 수출 증대	국민 삶의 질 향상	

〈표 1〉 대규모 SOC와 생활 SOC 비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 SOC 등장

과거 SOC사업은 토목 중심의 대규모 사업에 치중돼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제시하며 이를 적극 실 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육·복자문화·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약을 중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일컫는다.

(표 2) 해외 유사 개념

일본 living-related Infrastructure	호주 living Infrastructure
• Ogawa (1976)는 인프라를 산업 활동 관련 인프라(도로·철도 등)와 사람의	• Reimers 외(2019)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살아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주택·수도·공원·주차강·학교·병원 등을	인프라를 living infrastructure로 정의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프라라는
living-related infrastructure로 정의	점에서 우리나라 생활 SOC와 동일하나 시설의 지속가능성·친환경 관리에 중점

2022년까지 생활 SOC 확충 위해 대규모 투자 예정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공공의료·안전시설 등에 총 48조3,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생활 SOC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 생활 SOC 예산은 약 12조원(정부예산 8조6,000억원+지자체 분담금 3조3,000억원[추정])으로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중액되었다. 지자체 분담금의 경우 생활 SOC 투자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는 부담이 적지만 생활 SOC가 가장 시급한 지방 시군구 등의 기초지자체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표 3) 2019년 생활 SOC 주요 투자 내용

구분		세부항목	예산안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1조 1천억 원)	· 지역관광 인프라(6천억 원)	1조 7천억 원
지역활력 제고 인프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2조 6천억 원)	•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스마트공장(9천억 원)	3조 5천억 원
생활안전・환경 인프라	• 복지시설·생활안전 인프라(2조 7천억 원)	•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7천억 원)	3조 4천억 원

대규모 SOC 예산은 축소 중

토목 중심의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5,0009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17조5,000억원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5년 115조7,000억원에서 2019년 16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214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단일 분야에서 처음으로 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의 SOC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를 실시하되, 지역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산업의 성격을 고려해 생활 SOC로 사용처를 변경하고 있다.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생활 SOC 민간투자 분야와 가능성

생활 SOC 3대 분야는 여가건강 활동, 지역 활력, 생활안전·환경으로 경제성장을 1차 목표로 설정한 대규모 SOC와 대비된다. 각 분야 사업을 시설물로 분류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여가건강, 안전, 에너지, 도시재생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형태 중 민간투자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상하수도·도로·철도·주차장·교육시설·문화시설·체육관·복지시설 등 해당시설 아용자에게 요금 부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된다.

(표 4) 생활 SOC 시설물 구분

주거	교통	복지	여가·건강	안전	에너지	도시재생
임대주택, 상하수도 등	도로, 철도, 주차장, 수소충전소 등	병원, 어린이과학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노인복지사설등	공원, 체육관, 문화시설, 녹지숲, (미세먼지 차단) 등	재난대비시설 (화재알림이, 하친 범람 방지시설) 등	태양광시설, LPG 배관망 등	산업단지 재생, 스마트 공장 등

도로·철도·주차장 등 다른 생활 SOC 시설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¹⁾ 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고, 병원·교육시설·문화시설은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²⁾ 방식을 통해 수요와 관계없이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소득주도 성장과 생활 SOC

소득주도 성장은 복지정책(일자리 마련, 가계·실질 소득 증대)의 마련과 지출비용 절감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중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 SOC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부담을 고려해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마련의 현실적인 추진 대안이 될 수 있다. 생활 SOC는 공사단계에서 대형건설사 중심이 아닌 지역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중대에 궁정적이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정책이며,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생활 SOC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생활 SOC사업은 도로나 경전철처럼 사업수익성 판단 근거가 되는 수요예측의 결과로 인한 재정 위험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 유인 요건이 형성돼 가격 품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간 입장에서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민간투자 이슈는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치적인 책임성과 행정능력의 한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대상 사업에 따라 적정 수익률이 확보될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보조금 또는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 기간의 연장 등이 있다. 다만 생활 SOC사업 수입 규모가 기존의 대규모 SOC사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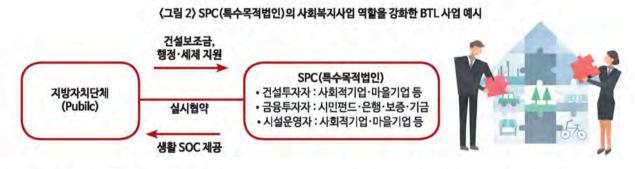
¹⁾ 민간 사업자가 사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사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

²⁾ 민간이 공공사설을 짓고 정부가 아름 엄마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³⁾ 형식의 기존 SOC사업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도로·철도·항만 등 대형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부는 예산승인과 보조금·세제혜택 등 재정·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은 정부가 승인한 범위 안에서 공사·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유연성이 부족한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생활 SOC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므로 사업추진 시 민간참여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지분구조는 건설사 금융사로 한정됐지만 생활 SOC사업은 사업목적 과 방향성이 국민을 향해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상 시설에 따른 다양한 참여주체가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생활 SOC사업은 기존 대규모 SOC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약점은 주무관청이 사업 위험성을 민간사업자와 공유해주면 보완이 가능하므로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BTO+BTL(수익형+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BTO-a, BTO+BTL 방식을 생활 SOC사업에 적용해 정부의 재정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시설 이용율을 높이고, 부대부속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로 운영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표5) BTO-a와 BTO+BTL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BTO+BTL(수익형+임대형 민간투자)
수익공유형 방식으로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하는 방식	혼합형 방식으로 수요위험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식

한편 생활 SOC사업을 민간투자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민간금융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에 중요한 재원 규모·투입시기, 사업내용, 규제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도 대상 사업선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할 인력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료율料:국토연구왕)

³⁾ 공격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을 의미하며, 상생의 협력모델로 꼽힌다.

글로벌 시멘트산업 동향



번역 / 강재영 (물류조사파트 사원)

태평양시멘트, Elex사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태평양시멘트와 Elex사가 공동 투자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이와테현소재)가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7,500만와트 규모의 이 발전소는 2016년 7월 태평양시멘트와 전기 엔지니어링 회사인 Elex가 65대 35의 비율로 총 3,65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 발전소는 태평양시멘트의 오후나토 공장(연간 190만톤 생산능력 보유)에 코코넛을 연소시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연간 5,200억와트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30만톤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CP Applied Technologies, 디지털 제품 선택 포탈 출시

글로벌 건축자재 기술 공급사인 GCP Applied Technologies가 새로운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 솔루션은 시멘트 생산업체를 위한 제품 선택을 최적화하여 운영비용 절감, 투자자본수익률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시멘트 생산을 달성토록 해준다. GCP의 현장 직원이 제품 선택 포탈을 사용하여 시멘트 생산자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제품을 추천함으로써 각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시멘트 첨가제 제조 및 응용 분야에서 GCP의 글로벌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지털 솔루션은 독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정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시멘트 첨가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한다. GCP는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를 통해 내부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고객에게 향상된 가치를 제공한다.

새로운 제품선택 포탈은 빨라지고 정확해진 고객의 품질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된 시간, 자원, 비용의 감축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연료비 및 에너지 절약과 함께 시멘트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프로젝트 투자 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화신(Huaxin) 시멘트 순이익 전년대비 18~28% 증가

중국 화신(Huaxin) 시멘트의 2019년 순이익이 1조134억원에서 1조941억원 사이로 전년대비 18~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러한 상승세는 주요 제품의 생산과 판매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Yicai News는 중국 시멘트협회 정보센터 부국장과 디지털 시멘트 네트워크 CEO Chen Bailin의 발언을 인용해 2020년에도 중국 전역에 걸쳐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암시멘트그룹, BIMobiect와 합작투자 법인 설립 협약

태국 시암시멘트그룹의 콘크리트 및 골재 사업부인 CPAC가 스웨덴 디지털화 전문업체 BIMobject와 합작투자 법인(BIMobject TH)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암시멘트그룹은 고객 프로젝트의 개념 설계, 재료 선택 및 시공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서비스 플랫폼인 빌딩 정보 모델링(BIM)을 제공하게 된다.

시암 시멘트그룹의 Roongrote Rangsiyopash 대표는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건설 솔루션을 확장하려는 시암시멘트그룹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유럽시멘트협회, European Green Deal에 따른 산업목표 검토

유럽시멘트협회(Cembureau)는 2050년 저탄소 로드맵(2013/2018년)에서 발표된 목표를 검토하여 2019년 12월에 출판된 European Green Deal의 탄소 중립 목표와 업계의 노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업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순환 경제에서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핵심 역할과 2050년까지 유럽의 가치 사슬을 따라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제시하는 개정된 저탄소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Raoul de Parisot 유럽시멘트협회장은 "우리는 업계가 유럽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가 있다"라고 밝혔다.

FLSmidth,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덴마크의 시멘트 기술 공급업체인 FLSmidth가 사업구조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50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FLSmidth사는 2018년 말 기준 11,368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4.4%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0명은 코펜하겐 본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는 전 세계 운영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 슐츠 CEO는 "이번 조치는 2019년 대규모 자본투자의 시장 약화와 내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감안할 때 불행하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시멘트산업, 내수 부진으로 수출 중요성 부각

베트남시멘트협회(VCA)의 Nguyễn Quang Cung 회장은 2020년에는 내수 판매 부진에 따라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Cung 회장은 "올해 베트남 시멘트 산업은 인프라 사업 정체 여파로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는 내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2020년에는 3,400만톤에서 2021년 2,500만톤으로 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Cung 회장은 또한 올해에는 베트남에서 두 개의 신규 시멘트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장은 Nghệ의 중앙 지역에 있는 Tân Thắng Commune의 연간 250만톤급 생산 공장과 Thanh Hóa 지역 Bâm Sơn Commune의 연간 460만톤급 생산 공장이다. 신공장은 베트남 시멘트산업에 연간 1억톤 이상의 총 생산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수요는 연간 7,000만톤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CRH사, Boral 인수 가능성 증대

호주 현지 언론이 아일랜드의 거대 건축자재인 CRH사가 Boral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CRH는 2015년 라파즈흘심이 합병한 후 라파즈(Lafarge)와 홀심(Holcim)으로부터 65억달러의 자산을 확보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시장 가치가 3번째로 큰 건축 자재 공급업체가 되었다.

이번 인수건은 바로 실행되지 않으면 Boral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속에 나온 것이다. 일부 회사들이 이전에 Boral 인수를 고려해 본 적이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39억달러로 해외에서 현금이 풍부한 전략적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관심을 가진 바 있다. 3년 전 Boral은 48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기도 했다.

한편 Boral은 최근 호주 산불이 뉴 사우스 웨일즈의 Boral's Berrima 공장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과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라파즈홀심, 독일 시장에 탄소제로 콘크리트 출시

독일의 라파즈홀심사가 이산화탄소 제로 콘크리트인 'Holcim EcoPact Zero'를 개발하고 독일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독일 라파즈홀심의 CEO인 Thorsten Hahn은 "제품 출시와 관련해 독일 고객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중으로 2020년 초에는 EcoPact Zero가 첫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멕스(Cemex), 청년 고용능력 향상 기회 제공

시멕스사는 현재 11개국 45,000명의 소외된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 젊은이들에게 산업연수를 통한 새로운 고용기회^(NEO)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멕스사는 2022년까지 수상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제도, 글로벌 청년동맹(All4YOUth)과의 제휴를 통해 2022년까지 65,0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특히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흥심필리핀, 자국 내 인프라 개발 지원

홀심필리핀(Holcim Philippines)이 2019년에 La Union, Bulacan 및 Davao에 있는 공장 증설 및 개량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연간 시멘트 공급량이 1,000만톤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3분기에 16.3% 성장하면서 내수 건설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홀심필리핀사는 도로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체품인 Solido 제품을 출시했다. Solido는 강도와 내구성이 입증된 제품이며 또 다른 주력제품인 SuperFastCrete는 빠른 보수와 개통이 필요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홀심필리핀 관계자는 "필리핀 경제 및 건설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으로 2019년에 시행된 많은 계획을 통해 국가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국가 발전의 파트너가 되어 고객의 성장과 혁신을 돕겠다"고 밝혔다.

PCA, 2020년 미국 시멘트 수요 1.7% 성장 전망

지난 2월 4일 PCA^(미국 포틀랜드시멘트협회)의 에드 설리번^(Ed Sullivan) 수석 부사장이 미국의 시멘트 수요가 2020년에 1.7% 증가하고 주택 건설이 기대치를 초과할 경우 2.7%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드 설리번 부사장은 또한 "2022년까지 시멘트 수요가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시멘트 시장 확대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시멘트 수요 문화

S&P가 'China Commodities Watch: 2020 Outlook and Health Check'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시멘트 생산업체를 포함한 중국 건설자재 생산업체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국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 9개월간 순이익 35% 감소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의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순이익이 전년동기의 839억원에서 544억원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간 수익은 전년도 2조410억원에서 2조원으로 3.3% 줄어들었다.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는 2020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수익을 2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회계연도의 순이익 추정치가 1,200억원에 그친 것으로 2019년 회계연도의 1,600억원에 비해 27% 감소한 것이다.

태평양시멘트 9개월간 수익 전년대비 4.3% 감소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2020년 회계연도의 첫 3분기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3,31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만에 10% 하락한 것이다.

이 회사의 9개월간 매출액은 전년동기의 7조5,000억원에서 올해 7조2,000억원으로 4.3% 감소했다. 태평양시멘트는 2019년 11월 12일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7.000억원에서 4.34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찌유니셈, 2019년 매출 전년대비 12% 증가

이탈리아 부찌 유니셈(Buzzi Unicem)의 2019년 총 매출액은 2018년 3조7,000억원에서 12% 증가한 4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판매량은 2,800만톤에서 전년대비 4,3% 증가한 2,90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찌유니셈은 2019년 7월 1일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90만톤 규모의 신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이탈리아와 독일에 2개의 새로운 연삭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PCA, 2022년까지 시멘트 소비 완만한 성장 예측

미국포틀랜드시멘트협회(PCA)는 2020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World of Concrete 행사와 관련해 기자 회견을 갖고 2022년까지 시멘트 소비가 완만한 성장에 머물 것이라 전망했다.

PCA 시장정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시멘트소비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에서 예상보다 강한 잠재력이 발현되면 1%의 추가성장이 기대된다. 경제는 소비지출과 노동시장의 두 축에 달려 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시멘트 시장의 순환적인 부분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점차 더뎌지고 있으며 활기를 잃는 추세다. 이에 PCA는 건설 활동 및 시멘트소비 증가율과 함께 경제 성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는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시멘트 소비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소비 심리 하락, 무역 문제, 그리고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등이 이러한 경제 전반에 대한 위협요인이다.

2020년 1월 러시아 시멘트 소비 9.6% 증가

러시아의 시멘트생산업체들이 2020년 1월에 240만톤의 시멘트를 판매하여 전년동월의 220만톤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시멘트연합의 낙관적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2020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도시 환경 프로그램, 통합 개발 프로젝트의 구현, 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수요가 늘면서 인해 시멘트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후이콘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장 정비 돌입

중국 안후이콘치(Anhui Conch)의 자회사인 중국시멘트공장회사(China Cement Plant Company)가 코로나19에 따른 공장휴식기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직 롤러 밀 설치를 포함하여 통합 공장의 세 번째 라인에서 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안후이콘치 측은 중국시멘트공장회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와 관련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터키 Çimsa, 세계 콘크리트 무역 박람회에 백색 시멘트 제품 출품

터키의 Çimsa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콘크리트 무역 박람회에서 미국 시장을 위한 새로운 백색 시멘트 제품인 Çimsa Aluminates 및 Çimsa Super White 제품군을 선보였다.

터키 최대의 회색 시멘트 생산업체이자 전 세계 3위의 백색 시멘트 제조업체인 Çimsa의 CEO인 Ülkü Özcan은 해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멘트 산업에 대한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회사는 2017년 미국에 Cimsa Americas Cement Manufacturing and Sales Corp를 설립했으며 2019년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분쇄 공장의 가동을 시작한 바 있다.

be'ah, 오만시멘트와 폐타이어 대체연료 사용계약 체결

오만 환경지주회사(be'ah)는 지난 2월 6일 오만시멘트와 시멘트생산을 위한 폐타이어 대체연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회사는 안전 및 보안 조치, 적절한 예방 절차에 따라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ah의 Tariq Amri CEO는 "이번 계약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거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원료를 추출하여 안전하게 폐기하는 be'ah의 전략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과 유지 전략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만시멘트의 CEO인 Al-Hajr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에너지 생산의 다양화 및 시멘트생산에 사용될 연료를 변환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매립지에서 시멘트 공장으로 연료를 생산 및 운송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약 30,000tpy의 폐타이어가 소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l-Hajri는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폐타이어를 대체 연료로 사용하여 술탄 지역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델베르크시멘트, 2019년 사업실적 잠정치 발표

독일 최대 시멘트기업인 하이델베르크시멘트(Heidelberg Cement)가 2019사업연도의 순부채, 매출액, 수익, 감가상각 전/후 영업이익,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대한 잠정 수치를 발표했다.

2019년 시멘트 및 클링커 판매량은 3.1% 감소한 1억2,600만톤을 기록했다. 통합 효과를 제외한 시멘트 및 클링커 판매량은 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 골재 판매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억800만톤에 머물렀고, 통합 효과를 제외한 판매량도 1.2% 줄어들었다. 레미콘 판매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070만㎡으로 통합 효과를 제외하면 1.1% 증가했다.

판매량보다는 가격 인상에 집중하겠다는 하이델베르크의 전략에 따라 2019년 4분기에는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이에 2019년 전체의 판매량도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룹 매출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2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감가상각 이전 영업이익은 15.5% 증가한 4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감가상각 이후 영업이익은 8.8% 증가한 2조8,000억원을 나타내며 회사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편 그룹 전체와 개별그룹 영역의 2019년 4분기 및 사업연도 예비결과는 2020년 2월 18일 거래 성명에서 예정대로 발표된다. 이 전망을 포함한 하이델베르크시멘트의 전체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3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미쓰비시소재, 우베산업과 시멘트사업 합병 구체화

일본의 미쓰비시소재와 우베산업이 시멘트사업의 잠재적 인수합병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논의와 후속 연구가 성공하면 2022년 4월경 예상되는 통합에 앞서 2020년 9월 말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회사들이 합병하기 위한 공식적인 결정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두 회사는 수요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시멘트사업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998년부터 시멘트판매와 물류 사업을 통합한 우베-미쓰비시 시멘트라는 합작법인과 함께 일해 왔다.

2020년 베트남 시멘트·클링커 생산 4~5% 증가

베트남건설부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의 시멘트 및 클링커 생산량은 1억100만~1억300만톤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내수는 6,900만~7,000만톤, 수출은 3,200만~3,4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시멘트협회 회장은 "지난해 베트남의 시멘트수요가 GDP 성장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2020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투입 비용 증가, 환경 및 기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임금인상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중국과 태국이 수출을 늘리면서 베트남 시멘트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에 각 기업들이 시장 동향을 연구하여 생산계획 조정, 시멘트가격 안정화 등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베트남 국립석탄공업지주유한공사(Vinacomin)에 충분한 석탄을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베트남 전기는 시멘트생산 활동을 위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Vicat, EU 배출권 거래(ETS) 크레딧 대량 축적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시멘트생산업체인 Vicatol 2030년까지 운영하기에 충분한 EU 배출권 거래(ETS) 크레딧을 대량으로 축적했다고 보도했다.

ETS의 첫 세 단계에서 과도하게 할당된 크레딧은 판매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 4단계부터 이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Vicat은 현재 500만톤의 ETS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다.

Guy Sidos CEO는 Vicat의 프랑스와 스위스에서의 경영환경을 전망하면서 "2030년에도 여전히 혹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리한 조건에서 다음 유럽 규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Vicat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ETS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Vicat은 2019년 말 1990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줄였으며, 2030년까지 13%를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

(출처 International Cement Review)

과거 유사사례를 통해 본 코로나19 영향 예측 및 정책적 시사점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유사 사례에서 경제와 산업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의 영향 예측과 정책 대응 관련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강두용, 만성환 제'보고서를 통해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볼 때 업종별 파해 정도에 큰 편차가 존재하고 일부 업종에 피해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도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 및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2000년 이후 주요 유행성 전염병 사례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주요 유행성 전염병으로는 2002~2003년의 사스(SARS), 2009년의 신종플루, 2015년의 메르스(MERS)를 들 수 있다(표1 참조). 상기 3개 사례 중에서는 신종플루가 확산 정도나 지속기간 모두 가장 넓고 길었다. 사스나 메르스는 국지적 유행에 그친 반면 신종플루는 전세계적인 발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와 유사하다.

다만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다른 2개 사례는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에 비해 훨씬 더 낮고 또 치료제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종플루의 경우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신종플루의 발병 시기가 마국발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로부터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 더하여 경제지표상으로는 3개 사례 중에서 신종플루의 영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가장 어렵다.

반면 사스는 전세계적인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도 치사율이 높아 해당 국가에는 큰 경제적 충격을 미쳤다. 한편 메르스는 국지적 발병에 그쳤고 지속기간이 가장 짧았지만 우리나라가 주요 발병국가에 속하면서 상기 3 사례 중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에 가장 뚜렷한 가시적 영향을 미쳤다.

(표 1) 2000년 이후 주요 유행성 전염병

	사스	신종품루	메르스	코로나19
시기	2002.11~2003.7	2009.5~2010.3	2015.5~7	2020.1~
주요 발병지	동아시아	북미, 중동 등 세계	중동, 한국 등	동아시아 등 세계
감염자수	8,096 (4)	n.a.	1,367*(186)	
시망자수	774 (0)	151,700~575,400	525* (39)	

자료: WHO, Wikipedia 등으로부터 필자 작성. 주: * 2015년 6월 기준, () 안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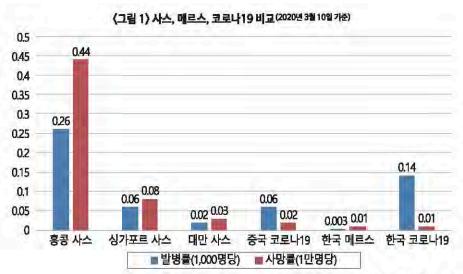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사스가 집중적으로 발병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3개국의 사스 사례와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은 이들 사례와 금번 코로나19에 대해 국가별로 인구 대비 발병률과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일단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홍콩 사스 사례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 발병률에서는 2020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가 홍콩 사스 다음으로 높다. 반면 사망률 기준으로는 한국의 코로나19는 상기 3국의 사스 사례에 비해 훨씬 낮다. 경제적 충격의 크기가 〈그림 1〉의 인구당 발병률이나 사망률과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림 1〉을 사례별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19가 국내 경제나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다.

(표 2) SARS 국별 통계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시기
감염자 수	5,327	1,755	346	238	4	8,096
사망자수	349	299	73	33	0	774

자료: WHO.



자료: WHO 등으로부터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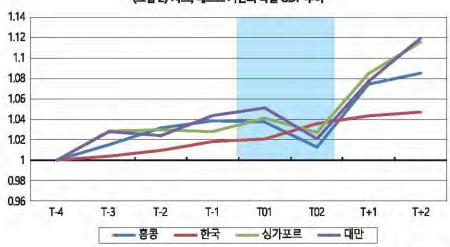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먼저, 여기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질병사례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느 방법이든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질병 유행기간 전후의 성장률 비교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즉 질병 유행기간을 포함한 시계열을 발병 이전기간, 질병 진행기간, 종료 후 반등 기간, 반등 이후 기간의 4구간으로 나누어 발병 이전 기간과 반등 이후 기간의 평균으로부터 추세를 구하고, 동 추세 대비 질병 진행기간의 성장률 하락폭과 반등 구간의 성장률 반등 폭을 구하여 살펴본다. 물론 이 방법은 질병 충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사례의 경우 질병 진행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표상으로 진행기간의 성장률 하락과 반등 기간의 성장률 반등이 가시적으로 뚜렷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약식 추정으로서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추세는 발병 이전 4~8분기, 반등 이후 8분기의 전기대비 분기 성장률의 평균으로 구하였고 질병 진행기간은 사스의 경우 2003년 1~2분기(2개분기), 메르스의 경우 2015년 2~3분기(2개분기), 반등 구간은 진행기간 이후의 2개 분기로 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IHS Markit과 한국은 행 ECOS에서 구한 것으로 모두 계절조정된 분기자료이다.

사스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3국 경제(이하 사스 3국으로 지칭)에 미친 영향은 이들 경제의 GDP 성장률 추이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그림2 참조). 사스 발생기간인 2002년 4분기~2003년 2분기 중의 확연한 성장률 둔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국 공히 사스의 충격은 2003년 2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 동분기에는 3국 GDP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반면 메르스 발병 기간의 한국 GDP 추이에서는 성장둔화가 별로 뚜렷하지 않다. 메르스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사스가 이들 3국에 미친 영향에 비해서는 훨씬 작아 GDP에의 영향은 미미하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민간소비나 일부 관련 업종에서 사스 3국 사례보다는 작은 폭의 영향이 관찰된다.

(그림 2) 사스, 메르스 기간의 국범 GDP 추이



자료: IHS Markit.

주 1 : 한국은 메르스 기간, 다른 나라는 사스 기간.

주 2: 음영 및 T01, T02가 발병기간(사스: 2003년 1~2분기, 메르스: 2015년 2~3분기).

주3: 발병4분기전(T-4) GDP=1.

경제적 영향의 크기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전후 추세 대비 사스 영향이 주로 나타난 2003년 1~2분기의 GDP 성장률 하락 폭을 살펴보면 분기 성장률 기준(이하 등일) 3국 평균으로 1.8%포인트이고 저점(2003년 ^{2분기)}의 하락 폭은 3.3%포인트였다. 전체적으로 타격이 가장 컸던 국가는 흥콩으로 발생기간의 GDP 하락 폭이 2.4%포인트였고, 저점의 성장률 하락폭은 대만이 가장 커서 3.8%포인트에 달했다(표3참조).

(표 3) 사스 진행기간 전후 주요 발병국의 GDP 성장률 변화

단위:분기 성장률, %포인트

	하락 푹 (= 추세 - 2003년 1, 2분기 평균)	최대 하락 폭 (= 추세 - 2003년 2분기)	반등 폭 (= 2003년 3, 4분기 평균 - 추세)
홍콩	2.4	3.5	2.5
싱가포르	1.2	2.5	3.1
대만	2.0	3.8	3.8
3국 평균	1.8	3.3	3.1

자료: IHS Markit.

다만 경제적 충격은 대체로 단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태 종료 이후인 2003년 3~4분기에는 3국 모두에서 사스 발생기간의 성장률 하락 폭을 상쇄하는 성장률 반둥이 관찰되었다. 저점인 2003년 2분기의 3국 평균 성장률은 -2,2%였지만 사태 종료 직후인 3분기 성장률은 5.8%로 급격한 반등을 보였다(그림 3 참조), 이에 따라 2003년 연간 전체로 본 추세 대비 성장률 하락은 3국 평균으로 분기 성장률 기준 0.1%포인트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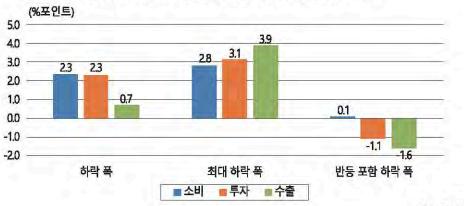
[3 자료 : IHS Markit.

GDP를 구성하는 지출항목별로는 소비와 투자의 하락 폭이 비슷하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하락 폭을 보였다(그림 4 참조), 다만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 충격이 GDP 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소비 둔화 폭은 싱가포르가 가장 커서 3.1%포인트였고 사스 3국 평균으로는 2.3%포인트였다. 메르스 기간의 한국은 이보다 충격이 훨씬 작아 민간소비 하락 폭은 0.2%포인트에 그쳤다(그림 5 참조).

한편 3개 지출항목 모두 사태 종료 이후에는 급반등을 보여 장기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경로 측면에서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주로 수요측면의 충격을 통해 나타났고 공급측면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국가의 공급망이 주로 중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당시 중국경제에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던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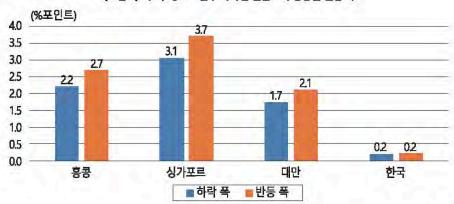


〈그림 4〉 사스 기간의 지출항목별 성장률 변화(3국 평균, 전기비 기준)



자료: IHS Markit.

(그림 5) 사스, 메르스 전후 국가별 민간소비 성장률 변동 폭



자료 : IHS Markit. 주 : 한국은 메르스 기간, 다른 나라는 사스 기간.

(그림 6) 사스, 메르스 기간의 국별 민간소비 추이



자료: IHS Markit.

주1: 한국은 메르스 기간, 다른 나라는 사스 기간.

주2: 음영 및 T01, T02의 발병기간(사스: 2003년 1~2분기, 메르스: 2015년 2~3분기).

산업별 영향

제조업과 서비스로 나누어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 7〉에서 보듯 사스 발병기간 중 서비스의 둔화는 뚜렷한 반면 제조업 부진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메르스 기간의 한국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이는 사스나 메르스 모두 전세계적인 확산에는 이르지 않고 국지적 발발에 그치면서 수출 수요보다는 내수 측면에서 발병국가에 주로 영향을 미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부진에서도 사스 3국 사례에 비하면 메르스 기간의 한국 성장 둔화가 훨씬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서비스) (제조업) 13 12 1.15 1.1 1.1 1.05 0.9 1 0.8 0.95 T-4 T-3 T-2 T-1 T01 T02 T+1 T+2 T-4 T-3 T-2 T-1 T01 T02 T+1 T+2 싱가포르 흥콩 -- 한국 _ 대만 싱가포르 - 대만 - 한국

(그림 7) 사스, 메르스 기간의 국별 산업생산 추이

자료: IHS Markit. 주1:한국은 메르스 기간, 다른 나라는 사스 기간.

추2: 음염 및 T01, T02의 발병기간(사스: 2003년 1~2분기, 메르스: 2015년 2~3분기).

한편 서비스 내에서 세부 업종별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충격이 일부 업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업종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뛴다. 또 국가별로 비교하면 주요 충격업종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특징은 사스 3국의 경우나 메르스 한국의 경우나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사스의 경우 3국 공히 음식숙박업에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운수업, 유통업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국 모두 2003년 2분기에는 음식숙박업과 운수업이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림 8) 사스 3국의 주요 업종별 성장를 하락 폭(3국 평균, 전기비 기준)

자료: IHS Markit. 주: 제조업은 싱가포르 제외. 특히 음식숙박업의 성장둔화 폭은 매우 커서 3국 평균으로 사스 발병기간의 성장률 하락 폭이 약 12%포인트에 달했고 저점인 2003년 2분기의 성장률 하락 폭은 20%포인트가 넘었다. 가장 충격이 컸던 홍콩의 경우는 음식숙박업 최대 하락 폭이 30%포인트에 달했다. 3국 평균 운수업 성장률 하락 폭은 기간 평균 6%포인트, 최대 하락 폭 11%포인트였다(그림8참조).

사스 3국 사례와 비교하면 메르스 기간의 한국 서비스 산업은 우선 성장률 하락 폭이 훨씬 더 작고 주요 충격 업종의 내용도 조금씩 다른 차이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메르스 발병기간의 성장률 하락 폭은 보건의료 부문이 가장 크고 이어서 문화 및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점 기간의 성장률 최대 하락 폭 기준으로는 음식숙박, 보건의료, 문화 및 기타서비스의 순이었다. 한국 메르스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충격이 큰 것은 당시 메르스 발병이 주로 병원 내 감염의 형태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 부문의 발병기간 성장률 하락 폭은 약 2%포인트로 사스 3국 주요 업종의 하락 폭보다는 훨씬 작았다(그림 9, 10 참조).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 한국은행 ECOS.

한편 충격이 크게 나타난 주요 업종의 경우도 사태 종료 이후에는 성장률이 빠르게 반둥하면서 장기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스 3국의 경우나 메르스 한국의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의 영향 추정 관련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들 중 일부는 사스 및 메르스 사례의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스나 메르스 사례는 진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세계적 확산이 아닌 비교적 국지적 발발에 그친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들 사례의 경우 공급측면보다는 주로 수요측면의 충격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의 결과 이들 사례는 세계 수요 및 대외교역보다는 발병국의 내수에 주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특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상기 사례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공통적 특징들을 정리해보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충격의 크기와 무관하게 충격이 비교적 단기에 그치고 상황 종료 뒤에는 빠르게 반등하면서 장기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는 점이다. 거시경제 영향이나 주요 충격업종 영향이나 이같은 특징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물론 상기 사례들의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지만, 이같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일시적인 외생적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전형으로서 재연 가능성이 높은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로는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의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주요 충격업종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공통성을 지적할 수 있다. 홍콩 사스 사례의 경우 2분기에 걸쳐 GDP 성장률 둔화 폭이 2%포인트가 넘는 비교적 대형 충격이었음에도 서비스 업종의 절반 정도는 유의한 성장둔화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로는 주요 피해업종의 내용에 상당한 공통성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스 3국의 경우 주요 피해업종은 공통적으로 음식숙박, 운수, 유통의 순이었고 한국 메르스의 경우도 음식숙박업이 가장 중요한 충격업종의 하나라는 공통성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공통적 특징은 이번 코로나19 경우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까? 우선 단기충격급반등 특징부터 생각해보자. 코로나19가 비교적 단기간 내(예컨대주요국에서 금면 2분기 이대) 진정되고 세계 혹은 주요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기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충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상기 사스 혹은 메르스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수요측면뿐

아니라 공급측면의 충격을 동반한다고 해도 이는 충격의 강도를 높일 뿐 상기 조건(단기전쟁, 정기점제 등 다른 사태유발 없음)이 충족된다면 일시적인 외생적 충격으로서 단기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코로나19의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미 세계적 확산이 나타난 데다 치료약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가 사스 발발기인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로는 충격업종의 분포는 코로나19의 경우 사스 및 메르스와 달리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의 충격이 예상되고 전세계적 확산의 결과 내수뿐 아니라 수출충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스 및 메르스의 경우보다는 충격업종의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성상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는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제조업도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충격의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과거 사례에서 주요 충격업종이었던 음식숙박업은 이번 경우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업종이 갖는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격의 크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발병률과 확산 정도만 고려하더라도 이번 코로나19의 국내경제 충격은 사스 3국이 경험한 평균 충격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황이 좀더 길어지거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사스 홍콩 사례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충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용 관련 시사점

정책대응 방안과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대한 대응은 질병의 확산과 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전시경제 체제에 준하는 정부 행정기능에 의한 자원배분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행정자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염두에 두고 시장기능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책대응은 크게 총수요 부양을 위한 대응, 피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혹자도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나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소득 지원의 세 가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태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이되지 않고 비교적 단기(에컨대 2분기 이내)에 그친다면 첫 번째 대응(홍수요 부양)보다는 두세 번째 대응(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취약계층 소득지원)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 산업별로 피해의 정도에 큰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의 보편적 대응보다는 피해가 큰 부문에 타깃팅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초부터 시멘트업계에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더해졌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올해부터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 시멘트업계도 어느 정도 수궁은 한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올해 물류비가 10% 가량 올라 전년 대비 400억원 가량 중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비,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기고 있는 시멘트업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만도하다. 특히 일몰제의 시범 대상으로 시멘트업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 약 40만대 중 시멘트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모집단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뿌리임을 적극 알려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시멘트업계가 이 같이 억울한 일은 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한 해에만 해도 이중과세 추진, 일본산 석단재 규제 등 주요 이슈마다 타깃이 된 바 있다.

근간에는 시멘트업계 하면 떠오르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미세먼지 발생 주요 업종 중 하나 등이 있다. 산업 초기와 과도기였던 수십 년 전 개발시대의 이미지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석회석 광산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인근의 주민과 각종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시멘트 제조과정을 제대로 보고 이후 절차에 관심을 가졌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분진은 커녕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볼 때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다. 기술이 발전하고 규제도 그만큼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해서 분쇄 등 공정을 거쳐 시멘트를 만들기까지 필연적으로 분진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멘트업체가 공정을 자동화 밀폐화해 최근에는 분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페비닐, 페플라스틱, 페타이어 등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산 시 활용해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대 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고 2,000℃ 가까운 온도에서 완전 연소되어 대기오염의 걱정도 없다. 이 같은 공로로 쌍용양회 등 일부 업체는 정부로부터 환경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업계는 우리사회 환경오염 주범의 하나로 낙

인찍혀 한국 경제의 뿌리임에도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남 탓할 일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시멘트업계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친환경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요즘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미지 변신 통해 위기를 넘어서라

2010년대에 들어와 매년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CES)에 참가하는 자동차업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업계와 시멘트업계는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친환경을 추구하지 않으면 향후 존폐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유럽의 경우 2021년까지 연간 개별 기업 평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규제를 기존 130g/km에서 95g/km로 약 27% 강화한다. CO₂ 1g 초과 시대당 95유로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자동차업계가 CES에 매년 참가해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목적이다. 자동차업계도 이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친환경 기술을 보유 및 적용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의 한 축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도 자동차업계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 마케팅을 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는 10년 후에 방점을 찍고, 전동화된 차량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벤츠와 아우디, BMW 등도 전기차를 비롯한 신개념의 친환경차로 대세에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물론 시멘트업계가 CES와 같은 국제무대에 데뷔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한 최고의 기술들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친환경산업임을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다면 연례행사처럼 '정 맞을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위기를 돌파하는 시멘트업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한국시멘트협회 각 회원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현활동 및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록빛 경영 실천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협회 각 회원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SAMPYO 삼표시멘트



설날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동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지난 1월 22일 삼척시에서 주최한 '설날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였다.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은 매년 명절 삼척중앙시장에서 진행되는데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설날을 이틀 앞두고 오일장을 맞이한 삼척 중앙시장에서는 차례상 준비를 위한 식재료와 많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많은 지역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였다. 이날 참여한 삼표시멘트 임직원들도 삼척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여러 가지 신기한 지역 먹거리를 보고,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느꼈다.

5 쌍용양회

쌍용양회 본사, 사랑의 연탄배달봉사 실시

쌍용양회 본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정릉3동 일대에서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 40가구에 총 7,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사 임직원들은 약 3시간 반 동안 직접 연탄을 각 가정마다 배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동해공장, 지역주민 대상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종합기술 훈련원에서 동해시 삼화동 지역주민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떡공예 배우기 등 문화교실을 개최하였다.

50여명의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이번 문화교실에서는 떡공예 배우기 일일 Class와 생활건강관리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화교실 행사를 통해 만든 떡케이크와 앙금 떡은 '떡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삼화동 관내 지역 9개소의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2002년부터 연 1회 이상 취미활동과 인기 강사 교양강좌, 요가 건강관리 교실 등의 내용으로 문화교실을 개최해왔으며, 지금까지 지역주민 및 임직원 가족 1,800여명이 참여했다.



2019 쌍용양회 동해공장장배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지난해 11월 3일 토요일 동해시웰빙스포츠타운 풋살구장에서 '2019 쌍용양회 동해공장장배 청소년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해공장이 주최하고 동해시 풋살연맹이 주관하여 실시한 이번 대회는 중등부 10개 팀과 고등부 14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이날 풋살대회에는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해 최석찬 동해시의장 등이 방문하여 행사를 축하했고 동해공장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동해공장장배 청소년 풋살대회는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지역주민들의 열띤 응원과 함성



등해지역주민 의료지원 봉사활동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팀들의 열정과 뛰어난 실력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가 이어졌다. 중등부에서는 '평균 3대 600'팀이, 고등부에서는 '북평고 DBW'팀이 최종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한편 이날 청소년 풋살대회에는 삼화동 부녀회를 주축으로 쌍용자원봉사단이 참가 선수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었다.

동해시 지역주민 대상 의료지원 봉사활동 실시

쌍용양회가 지난해 10월 13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함께 사업장이 위치한 강원도 동해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봉사활동을 벌였다.

쌍용양회 임직원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공동 의료 봉사단은 동해공장 인근 종합기술훈련원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하고,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검사를 비롯해 진료상담과 진맥, 그리고 침과 물리치료 등 각 중상에 맞는 진료와 처방을 하는 등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평소 관절염, 근육통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임시 진료소 방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봉사단이 점심도 거른 채 진료에 임해야 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거주지까지 찾아가 진찰과 처방을 하는 가정방문 의료지원 서비스를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료를 마친 후에는 한방소화제 등 상비약과 기념품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의료지원 봉사활동에는 6명의 한의사와 11명의 간호사 등 25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쌍용양회는 진료를 받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진료소를 오가는 교통편 제공, 그리고 원활한 진료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회와 부녀회원도 임시 진료소에 나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실천했다.

쌍용양회는 2010년부터 매년 생산공장이 위치한 동해와 영월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방과 한방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봉사를 벌여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4,2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았다. 쌍용양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유영을 확대해 나감 계획이다.



🚺 한일시멘트

사랑의 현혈 캠페인 실시

한일시멘트가 지난해 11월 18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한일 임직원 총 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헌혈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라며 "작은 나눔이 긴급하게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오며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단양공장, 지역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지난해 11월 27일 매포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단양공장은 매포초등학교 학생 17명과 매포중학교 학생 7명 등 모두 24명에게 7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일시멘트는 1995년부터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미래 지역사회의 주축이 될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520여 명에게 약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덕근 단양공장장은 "지역을 위한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발전기금 기탁 등 각종 환원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일봉사단 WITH, 겨울愛 김장 나눔 행사 실시

한일봉사단 WITH는 지난해 12월 13일 성남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성남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한일홀딩스,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한일네트웍스, 한일산업 임직원 35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장김치 1,000kg을 담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일가족은 위생모와 마스크, 앞치마를 두른 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절인 배추를 나르는 '배달조', 배추에 김칫소를 버무리는 '버무림조', 다 된 김치를 김장통에 넣는 '포장조'로 나누어 김장김치를 완성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일현대시멘트



산불예방 및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한일현대시멘트는 지난해 11월 19일 영월국유림관리소 주관으로 평소 방문객이 많은 고씨동굴 및 태화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및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예방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지정 등산로 이용하기, 산행 시 흔적 남기지 않기, 음주 및 흡연금지, 산림 내 취사 금지 등의 내용을 알리며 산림정화 활동에 주력했다.

이날 캠페인을 마친 임직원들은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산림활동을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19 사랑의 연탄 나누기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과 단양공장은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5일 공장 인근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공장 인근 지역의 홀로 주거 중인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13가구에 총 7,500장의 연탄을 전달하여 한일현대시멘트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는 한일현대시멘트 직원들의 일직 근무비를 일부 보태 시행되어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최덕근 부사장과 박홍서 상무보 등의 기부금이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활동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사랑나누기 헌혈행사를 진행해 나눔의 의의를 실천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강원도 내 헌혈 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직원들이 고통받는 화우들을 위해 헌혈을 실시하였다.

헌혈에 참여한 한일현대시멘트 임직원은 "혈액 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지원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2월 17일과 27일에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반도면사무소에 마스크 2000개를 지원 했으며, 3월 16일에도 한반도면 6개리에 가구당 1개씩 손 소독제 700 개와 마스크 1,000개를 추가 지원했다. 또한 단양공장도 북부 7개리에 손소독제 10개씩 70개를 지원했다.

한편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과 단양공장 임직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대응조치로 행동수칙 강화 안내와 해외여행 및 코로나 발생지역 여행금지, 종교활동, 회식 등 모임 금지, 공장 방문객 출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장 정문 외 3개소에 발열 측정소를 설치하여 공장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후 출입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 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 국수나눔 봉사활동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지난해 10월 12일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에 매주 토요일 '국수 나눔터'를 개장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국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 행사는 제천지구협의회 봉사회에서 4개조를 이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아세아시멘트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활동하고 있다. 이날 20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석하여 따끈한 칼국수와 밥, 그리고 후식으로는 바나나를 대접했다. 봉사회는 국수제조에서부터 국수 삶기, 운반, 설거지, 식당 청소와 정리정돈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노인요양원 '요한네집' 청소 봉사활동 펼쳐

지난해 10월 15일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요한네집'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손걸레와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 및 화장실, 창문 틀, 방충망 등을 청소하였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가을바람으로 모두 교체하였더니 봉사원들 마음도 시원해졌다. 아세아시멘트 적십사봉사회는 2011년부터 매월 노력봉사와 함께 생필품 및 현금 50만원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운영이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을 선정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요한네집 관계자는 "따듯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내·외부 청소를 해주는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래요양원 실내청소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19일 노인요양원인 '미래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이날은 식당 바닥의 장판이 찢어진 곳을 보수하였는데 특히 벽면 틈새가 벌어져 있어 가을이지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은 찬 공기로 실내가 추워져 어르신들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실리콘을 뿌려 틈새를 촘촘히 채워주었다. 또한 유리창 닦기 및 실내청소를 한 후 일정을 마감했다.

활동에 참여했던 한 봉사원은 "가을의 밝은 햇살을 받으며 깨끗해진 실내와 창가를 보니 마음은 한가위처럼 풍요로웠다"고 전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지난해 10월 21일 충북 제천시 일원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등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금번 활동은 아세아시멘트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11가정에게 사랑의 연탄 3,300장을 전달했다. 이렇듯 '사랑의 연탄나눔'은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적십사봉사회 김형수 회장은 "우리의 작은 도움이 모여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영등포 쪽방촌 주먹밥 급식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에 위치한 광야홈리스센터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먹밥 급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에 형성된 41개동 441 개실에 이르는 쪽방 밀집 지역을 일컫는다. 쪽방은 보통 넓이의 방을한두 사람이 들어갈 만하게 작은 방으로 나눈 것으로 약 2평 정도의규모라 한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명의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주먹밥 400여개와 김밥을 만들어 이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에는 겨울을 대비하여 쪽방촌 분들에게 연탄 3,000여장을 아세아시멘트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리어카로 큰길까지 끌고 온 후 동네 골목부터는 릴레이식으로 배달하여 차곡이 쌓아주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10월 28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인근지역 경로당과 독거노인, 결손가정에 40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다. 아세아시멘트는 매년 제천 인근지역의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짓기 및 세탁봉사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동 양육시설 안양의집 낙엽 및 화단정리

서울레미콘공장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인 '안양의 집'에서 건물주변의 낙엽들과 화단을 정리정돈하였다.

10월임에도 이날은 제법 쌀쌀했었기에 벌써 떨어진 낙엽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직원들은 빗자루로 쓸고, 임시로 마련한 동그란 소쿠리에 낙엽을 한가득 담아 이동시켰다. 또한 화단의 온갖 잡초를 뽑아 제거하니 1톤 트럭으로 3대분이나 나왔다.

주변정리에 열중했던 더라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직원들을 향해 '안양의 집' 원장은 "수고한다"며 쟁반에 사과랑 음료수 한 잔씩을 건네주었다. 한 직원은 "땀 흘린 뒤라 사과 한 조각이 꿀맛같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겨울나기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제천공장 적십자봉사회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적십자봉사관 앞 광장에서 '김장담그기'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아세아시멘트 봉사원 30여명을 비롯하여 시부녀, 참사랑, 드림, 월악 등 5개 봉사회 주관으로 실시했다.

첫째 날은 1,500포기의 배추를 밭에서 뽑아 차량을 통해 봉사관으로 이동시켰다. 둘째 날은 양념을 준비하고 배추 손질 및 씻기, 소금 뿌리기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루 동안 절이는 작업을 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아세아시멘트에서 식수 차량을 지원해 주어 한결 수월하게 김장작업을 수행했다. 이에 200여 명의 봉사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절인 배추를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낸 후 배추물빼기, 운반, 양념을 골고루 버무린 후 배달 종이박스에 넣어 포장하였다.

이렇게 소포장으로 만들어진 김장은 제천지역의 불우이웃과 각 단위 봉사대별로 결연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대구공장, 연꽃 피는 집 김장봉사 활동

아세아시멘트 대구공장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7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 '연꽃 피는 집'으로 김장봉사를 위해 떠났다. 전날에 이미 700여 포기의 배추를 절여 놓은 터라 이날은 김장 속에 넣을 파, 마늘, 고춧가루, 멸치액젓 등을 곁들인 온갖 양념을 넣고 비비는 작업을 맡았다. 이어 배추 안에 양념을 버무리고 차곡이 김장을 넣은 100여 개의 김장독을 대구공장 직원들이 저장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연꽃 피는 집'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혀 양념을 버무리고 무거운 김장독을 나르느라 힘들만도 한데 웃으면서 활동해준 아세아시멘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사랑의 헌혈행사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11월 14일 충청북도 제천공장 구내에서 올해 네 번째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인원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아세아시덴트 양승조 지원기획본부장은 "헌혈봉사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매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원 성락원, 실내청소

겨울로 접어드는 지난해 11월 27일 적십자봉사회에서는 노인요양원 '성락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다. 어르신들이 환기를 자주 못해서인지 내부에 묵은 먼지가 많았다. 거실 및 각 방을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바닥을 걸레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섬유탈취제를 뿌려주니이내 향기로움이 온 방으로 가득했다. 또한 화장실 바닥과 변기를 쓸고 닦은 후 물로 말끔하게 세척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온정 나눔

아세아시멘트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연말연시를 맞아 '2019 연말 불우이웃돕기 온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본사 및 제천공장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이다. 이렇게 모은 400만원으로 제천공장 인근지역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쌀, 고기,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결손가정의 자녀 5명에게는 장학금 19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박찬철 총무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

코로나19 피해지원 기부

지난 2월 28일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5,000만원을 단양군 지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일래 공장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 하게 됐다"며 "이번 기탁금이 긴급히 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 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이번 성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탁된 금액을 코로나19 관련 지정기탁금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치료, 긴급생계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로나19 국복 성공 기탁 급 50,000,000원

성신양회 노조, 매포읍에 쌀·라면 기탁

성신양회 단양공장 노동조합이 지난 2월 6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쌀과 라면 등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쌀(520㎏)과 라면(10৫자)은 최근 이창규 성신양회 노조위원장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받은 성원과 격려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 소외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탁된 쌀과 라면은 매포읍 권역(매포, 가곡, 영춘, 이상천) 어려운 아동과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옥계공장, 태풍 피해 벼 베기 봉사활동 나서

지난해 10월 10일, 옥계공장 직원 10여명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옥계지역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10월 초 몰아닥친 태풍 '미탁'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을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목격한 회사의 지원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참여 인원은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 10여명으로 이들은 공장 인근 남양2리 일대 농가 주민들을 도와 오전 9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비바람에 쓰러진 벼를 베고 농지를 복구하는 등 작업에 힘을 보탰다.



옥계공장, 1사1문화재 봉사활동 실시

지난해 10월 23일, 옥계공장 직원들이 공장 인근 강릉향교에서 '1사 1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본 활동은 본공장 소재지인 강릉지역 내 문화유산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 강릉향교와 협약을 맺어 매년 진행 중인 주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이다. 이날은 옥계공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15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향교 내외부 시설물 정리 및 주변 환경 정화를 중심으로 2시간여동안 적극적인 동안 봉사를 실시했다.

이건희 경영지원본부장은 "그간 다채로운 사회공헌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옥계공장, 클린데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지난해 10월 24일, 옥계공장 직원들이 공장 외곽지역 3.4km 구간에 대해 '클린데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계획된 이번 활동에는 60여명의 직원과 더불어 외곽 도로 전용 청소 차량 등의 장비가 투입되었고 오후 1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했되었다.

외곽 청소 구역은 ▲본관 사무동 입구~정문 입구(1.4km) ▲한라아파트 다리~정문 입구(0.9km) ▲한라아파트 다리~동물농장 입구(1.1km) 등 총 3.4km 구간이다. 노면 쓰레기 수거를 중심으로 작업이 이뤄졌으며 상반기와 달리 태풍으로 유입된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하천 청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장 내부에서는 공장생산팀 주관 하에 주요 지역에 대한 청소가 이뤄졌고 본관 사무동 및 생산보부 사무동에서도 내부 청소가 실시되었다.

제23회 백두대간 산삼심기 체험행사 후원

지난해 10월 26일,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제23회 백두대간 산삼심기체험행사'가 개최되었다. 백두대간보전회가 주관하고 한라시멘트 및 동해시·동부지방산립청이 공동으로 후원에 나선 본 행사는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백두대간보전회와 함께 추진해 온 'Eco-백두대간 2+운동'의 일환으로 한라시멘트는 매년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행사는 한라시멘트, 백두대간보전회, 동해시,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 및 시민들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8시 30분부터 3시간여동안 동해시 무릉계곡관리소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백두대간 산신제축사유공자 표창 수여식 등이 열렸으며, 이후 인근 두타산 자락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묘삼 및 산삼 씨앗을 심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묘삼과 씨앗을 심으며 백두대간 생태복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후원 통해 지역문화 진흥

한라시멘트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 등지에서 열린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GIFF 2019)'에 후원금 기탁 및 직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후원했다.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재단이 주관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강릉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적 영화문화 행사로 비경쟁 부문 30개국 73편의 초청작이 강릉시 일원에서 상영되었다.

이번 후원은 한라시멘트가 아세아시멘트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문화 행사 후원이다. 당사는 라파즈그룹소속이었을 당시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루브르박물관전', '옥계장티 보졸레누보 와인 & 막걸리 파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리 아세아시멘트도 제천시의 대표적 문화행사 중 하나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2005년부터 후원하고 있어양 사 모두 지역 문화 행사의 스폰서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양상이다. 김영환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써 향후 지역 중심의 문화사업 진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한다"며 후원 취지를 설명했다.

석회석 광산 복구지 멸종위기 야생식물 복원 행사 개최

지난해 11월 12일, 광산 복구지역 일원에서 '석회석 광산 멸종위기 야생식물 복위 행사'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2018년 6월, 원주지방화경청





및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과 생물종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체결한 '석회석 광산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라시멘트,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아들은 한 시간여동안 약 400㎡ 면적의 이식지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인공 중식한 개병풍 종자를 파종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복원을 위한 노력에 작은 힘을 보탰다.



급여 우수리기금 전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지난해 11월 21일, 한라시멘트 임직원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조성한 '급여 우수리기금' 5,323,284원을 옥계면사무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급여 우수리기금 모금은 한라시멘트의 대표적인 종업원 자선활동 중 하나이다. 매월 임직원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은 후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matching grant)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날 김영환 경영지원담당 상무, 박천복 노조위원장 및 실무 담당자는 옥계면사무소를 방문해 유제춘 옥계면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1월 중 옥계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연탄 및 기타생 필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12월 2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전사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진행되었다. 본 성금 또한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모금되었으며, 총 26,560,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기금은 연말까지 강릉시, 삼척시,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부(포항) 등에 기탁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사용되었다.



화재 취약계층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기증

지난해 12월 3일, 한라시멘트가 자동확산소화기 120개를 강릉소방서에 기증했다. 본 기증은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한라시멘트 는 매년 강릉소방서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 타이머 등의 물품을 기부 함으로써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강릉소방서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강릉소방서 진형민 서장과 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를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사는 240여만원 상당의 화목보일러용 자동확산소화기 120개를 강릉소방서 측에 전달했으며, 전달된 소화기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외 8개 마을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에 설치되게 된다.

민관공 합동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올무수거 행사 개최

지난해 12월 12일, 옥계 석회석 광산 복구지 인근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연합과 함께하는 민관공 합동 겨울철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올무수거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라시멘트와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및 개체 보전을 위해 2008년부터 12년째 이어 오고 있는 공익 환경활동이다.

오후 1시부터 2시간여동안 실시된 행사에는 옥계공장 직원들과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연합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은 야생동물 서식지에 설치된 먹이 급이대에 뽕나무 잎과 미네랄 블럭 등을 공급하는 먹이주기 작업과 더불어 불법 올무 수거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한라시멘트 직원들은 지난 6일, 야생동물연합 주최로 삼척시 가곡면 일대에서 개최된 '산양 먹이주기 행사'에도 참여해 생태계 보전의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

대외협력팀 김학성 부장은 "지역사회 공헌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민관공 합동작업을 통해 작업 효율성 증대는 물론 대외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향후에는 모회사인 아세아시멘트와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더욱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 후원 및 직원 자원봉사 참여

지난해 12월 27일,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개최된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한라시멘트가 급여우수리기금 기탁 및 직원·가족 자원봉사 등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옥계면번영회 주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이어져 온 본 행사는 매년 연말, 당사를 비롯한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후원과 2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봉사활동이다.

올해 한라시멘트는 급여우수리기금 500만원 기탁과 더불어 옥계공장 직원 40여명 및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관내 50여 세대에 연탄 15,000장을 배달하고 160여 세대에 김치·쌀·라면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봉사를 이어갔다. 특히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외협력팀 신승근 팀장은 "본 행사는 참여 임직원 수 기준으로 한라시멘트에서 후원하는 가장 큰 규모의 봉사활동"이라며 "지역사회는 물론 참여 임직원들의 호웅도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여행을 떠나본 사람은 안다. 오늘 떠날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전남 고홍의 작은 섬, 애도를 만났다. 준비물이라고는 철 지난바닷가에서 쉬어갈 폭신한 담요 한 장과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줄 이어폰, 아끼는 시집 두어 권이면 충분한 곳. 봄이면 온 섬에 향긋한 쑥이 쑥쑥자라서 쑥섬이라 불리는 애도(攻희)는 사랑 애(寒)가 아니라 쑥빛애(꼬)라지만, 단아하고 고즈넉한 마을 굽이굽이 피어나는 꽃길을 걷다보면, 그리운 얼굴이 불쑥 떠오르는 사랑의섬이다.

글·사진 / **민혜경** (여행작가) 출처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나를 찾아 떠나는 쑥섬쑥섬, 애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부질없는 욕망의 흔적들을 한낱 우주의 타끌처럼 날려버릴 수는 없을까, 푸르른 망망대해와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폭풍 검색했다. 그러다 운명처럼 애도를 만났다. 마음의 여유조차 없던 날들 속에서 '쉴섬' 애도를 찾은 건, 어쩌면 운명보다 행유이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소망대로 누구의 방해도 없이 혼자 혹은 둘만의 시간을 느릿느릿 보낼 수 있는 곳, 가슴이 뻥 뚫리도록 탁 트인 다도해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청정 난대림의 푸른 골짜기를 지나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밭을 만나는 곳, 애도의 하루는 힐링과 감동의 순간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애도에는 독특한 섬 문화도 남아있다. 애도에는 개와 닭 그리고 무덤이 없다. 골목에는 사부작사부작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만 보인다.

오랜 세월을 담담하게 지켜온 돌담처럼, 14가구의 애도 주 민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약들을 수백 년 동안 묵직 하게 지켜오고 있다.

힐링파크 쑥섬쑥섬에서 보낸 꽃 같은 하루

해안선 길이 $1 \text{km}^{(면적 0.32 \text{km}^2)}$ 의 작은 섬인 '애도(艾島)'는 전남고 흥군 봉래면에 속한 섬이다. 나로도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섬, 애도는 가깝고도 먼 섬이지만 호젓하게 떠나는 힐링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나로도 여객선터미널에서 바라보면 애도 마을이 손에 잡힐 것 같다. 배에 타자마자 내려야 할 만큼 가깝지만 잠시라도 배에서 맞는 바닷바람은 쾌적하고 시원하다. 애도 선착장에는 갈매기로 꾸며진 무인 탐방비 박스가 있다. '힐링파크 쑥섬쑥섬'의 입장료 5,000원은 섬과 주민을 위해쓰인다. 무인박스 옆에는 애도 탐방 코스 안내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다. 왼쪽 길로 가든 오른쪽 길로 가든 아름다운 애도의 풍광과 사랑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다.

선착장에서 왼쪽 길로 접어들면 갈매기 카페를 지나 탐방 로로 가는 가파른 언덕길이 나타난다. 타박타박 오를수록 산길은 시원하고 호젓하다. 햇볕을 가릴 만큼 울창한 난 대림 숲길에서 만나는 후박나무, 푸조나무, 육박나무와 돈나무 군락지는 영화 속의 밀림이 떠오를 정도다.

숨을 고르기가 무섭게 다도해와 수평선을 바라보며 걷는 3km의 몬당길이 이어진다. 산길을 오르다 해발 80m, 눈앞에 펼쳐지는 해상정원을 만나면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온다.

봄부터 겨울까지 300여 종의 꽃들이 알록달록 피고 지는 곳, 여기가 애도의 우주정원(별정원, 태양정원, 달정원)이다. 꽃범의 꼬리, 백일홍, 상사화, 칸나, 황화코스모스, 갯패랭이, 매리골 드, 천일홍, 과꽃, 은잔화, 낮달맞이, 맨드라미, 문빔, 우단동 자, 금계국, 수국, 마타리, 겹삼잎국화, 멜람포디움, 폐튜니아등 이름도 색다른 300여 종의 꽃들이 1년 내내 피고 지는 별 정원을 돌아보고 마을로 내려오면 돌담에 핀 야생화도 예사롭지 않다. 수백 년 되었다는 사랑의 돌담길을 지나 우끄터리 쌍우물까지 걸어가면 200년 혹은 300년을 살아온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무성하게 이어지는 동백길을 만난다.

마을 주민들의 추억이 느껴지는 쌍우물을 지나 등대까지 올라가면 애도의 비경인 일몰이 기다린다. 일몰 때문에 하 룻밤을 묵어간다고 할 만큼 멋진 노을을 감상하는 곳이다. 섬에서 1박 한다면 아름다운 별밤은 추가 보너스. 짙은 어둠이 내리면, 검은 융단에 박힌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별자리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쑥섬 언덕을 비밀 정원으로 가꾼 부부 이야기

애도는 전라남도 제1호의 민간 정원이다. 애도와 사랑에 빠진 김상현 교사와 고채훈 약사 부부가 지난 16년간 가 꾼 해발 80m의 해상 정원인 우주정원이다.

나로도 주민으로 주말이나 방학이면 쑥섬정원으로 출근하는 김상현 씨는 섬 이야기만 나오면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애도와 사랑에 빠지는 다섯 곳의 풍광에 목소리가 다섯 배 밝아진다.

"난대림 숲속에서 등대까지 걷다 보면 '와!'라는 감탄사가 다섯 번 나옵니다. 울창한 난대림 숲이 시작되는 환희의 언덕에서 한 번,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뷰 포인트를 만나 서 두 번, 언덕에서 시작되는 별정원 앞에서 세 번, 봄날 동 백길의 장관을 보며 네 번, 등대에서 바라보는 일몰에서 다섯 번, 와!가 절로 나오죠. 애도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은 감동의 물결입니다." 그는 우주정원을 조성할 때 바닥에 까는 지피식물이 필요 없었다고 말한다. 꽃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푸른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예 전문가라고 할 만큼 꽃에 박식한 부인 덕분에 자신은 꽃의 배치에만 신경을 썼다지만, 별정 원을 돌아보면 16년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부 부의 정성과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애도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여객선터미널에서 배 편^(왕복 2,000원)으로 입도할 수 있다. 총 탐방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지만,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마지막 배 시간을 기억해둘 것.

미리 체험 신청을 하면 숲해설가와 함께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방학에는 어촌 체험으로 바닷가 고동 잡기, 칠게 잡기, 주꾸미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수익금 은 모두 마을을 위해 사용된다. 매월 20일은 마을 배의 정기휴일이라 문의와 예약 필수.

■ **힐링파크 쑥섬쑥섬, 애도** - 주소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애도길 43

-문의: 010-2504-1991, 010-8672-9222

-인터넷: http://www.ssookseom.com/

■ 주변 음식점 - 순천횟집: 생선회 / 나로도항길 117 / 061-833-6441

- 다도해회관: 생선회 / 나로도항길 103-18 / 061-834-5111

- 서울식당: 생선회 / 나로도항길 145 / 061-835-5111

■ 숙소 - 우주항공호텔: 나로도항길 94-9 / 061-835-9631 / http://www.우주항공호텔.com/

- 나로비치호텔: 나로도항길 94-10 / 061-835-9001 / http://www.narocenter.com/

- 나로호텔펜션: 나로도항길 110-8 / 061-833-8893 / https://narohotel1.modoo.at/





Iravel Tin

5쌍웅양회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시멘트부문 1위 선정

쌍용양회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시멘트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지수를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쌍용양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멘트업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2013년 이후 계속 1위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됐다.

올해의 지속가능성지수(KS) Korean Substainability Index)는 46개 업종 1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업종별 애널리스트, 전문가, 지역사회, 주주, 임직원 등 25,400여 명의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쌍용양회는 '생태계 및 자연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대기, 수필, 토양오염, 미세먼지 등)'과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 증대'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019년 10월 18일 열린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는 이현준 대표집행임원이 참석해 한국 표준협회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지속가능성지수(KSI, Korean Substainability Index)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모델로 기업이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기업경영 활동으로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는지의 여부를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조사하는 모델이다.

동해·삼척지역 쌍용동우회 사무실 개소

강원도 동해와 삼척지역의 쌍용양회 퇴직자 모임인 '쌍용동우회'가 지난해 10월 31일 동해시 천곡동에서 쌍용동우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중 동해공장 부공장장, 정준덕 상무, 최동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그리고 250여명의 선배 쌍용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축하와 반가움의 인사를 전했다.



MEMBERSHIP NEWS



지금까지 동해와 삼척지역에서 소규모로 개별 운영되던 쌍용양회 퇴직자 소모임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소모임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만들어진 쌍용동우회는 앞으로 퇴직자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쌍용양회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쌍용동우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선배 쌍용인들은 과거 쌍용양회에서 근무했던 추억을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었고, 퇴직자들이 하나의 모임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회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회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쌍용동우회 김동철 회장(1976년 일사)은 "쌍용동우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쌍용동우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쌍용의 이름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쌍용양회는 쌍용동우회 사무실이 퇴직자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와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집기 등을 지원했다.



퇴직자 초청 Home Coming Day 행사 실시

쌍용양희 영월공장은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선배사우들을 초청하여 선·후배 쌍용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Home Coming Day'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영월, 제천지역의 쌍용양회 퇴직자 동우회를 주축으로 약 90여명의 퇴직한 선배 쌍용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용교 공장장, 김창현 노조지부장, 팀장 등 영월공장에 몸담았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쌍용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Home Coming Day 행사는 3층 대회의실에서 원용교 공장장과 김창현 노조지부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선배사우 대표(세천지역, 양월지역)들의 인사, 그리고 영월공장의 현재와 과거 선배 쌍용인들이 재직했던 시절을 비교하면서 보다 발전된 영월공장과 쌍용양회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회사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천서울요양병원의 금동인 원장을 초빙하여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에 걸쳐 치매예방 및 퇴직 후 건강하게 사는 법 등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했다. 준비된 강연이 끝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한 후에는 선배사우들이 '앞으로 백년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영월공장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백일홍 기념식수 행사를 공장 구내 잔디밭에서 진행했다.

이후 당초 계획했던 선배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행사는 갑작스럽게 내린 강우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잔디구장에서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선·후배 쌍용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며 Home Coming Day 행사를 마무리했다.

Home Coming Day 행사에 참석한 퇴직 선배사우들은 "퇴직 후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즐거웠 고, 쌍용양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며 한 때 몸담았던 쌍용인으로 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일시멘트

한일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개최

2019년 12월 26일, 한일시멘트 본사 18층 LOUNGE The HANIL에서 한일 창립 제58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허기호 회장은 창립기념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수고 없이는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노력 없이는 모레의 기쁨이 오지 않는다"며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 해동안 수고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사옥 이전을 계기로 구성원들이 더 희망차고 의미 있고 행복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MBERSHIP NEWS



시멘트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명예의 전당 현정

한일시멘트가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멘트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4일 한일시멘트 본사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이 개최됐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내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 중 한국품질만족지수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기업을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04년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전 사업장이 취득해 전사적 품질시스템을 통해 '환경과 품질'을 일찌감치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시멘트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전근식 대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기초건자재 부문에서고품질제품을 만들기위해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 품질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품질만족지수(KS-OEI)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 경영학회가 상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해당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내 유일의 품질만족도 종합지표이다.



2019년 단양공장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2019년 12월 27일 단양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단양공장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기계팀 '바꿔' 분임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총 4개 분임조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바꿔' 분임조는 'PH 보일러 해머링 설비 개선으로 정지시간 감소'를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상에는 생산팀 '로타리' 분임조, 장려상에는 전기팀 '드라이버팀' 분임조가 각각 수상했다.

한일현대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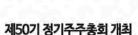
2019년 실적보고 및 2020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

한일현대시멘트는 1월 21일 본사 18층 라운지에서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실적보고 및 2020년 경영목표 달성 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2019년 경영실적을 점검하면서 각 사업장 및 부서별 핵심전략 및 과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경영목표 달성을 논의하고 경영계획을 공유하는 자리 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건설경기 침체와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이루어내겠 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오봉 대표이사는 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작년 한 해 어려 운 부분이 많았지만 모두의 노력 덕분에 전년대비 더 나은 상과 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2020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현대시멘트 제50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20일 본사 18층 라 운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영업 보고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 태등을 보고하고 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됐다.

장오봉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 축되어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 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안전 운임제 시행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 사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옥 이전을 앞두고 "다가올 '서초시대'에 새로운 마음가 짐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 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MEMBERSHIP NEWS

2019년 모범사원 해외연수

한일현대시멘트는 모범사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태국 관광 및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직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일현대시멘트는 매년 모범사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능력개발 기회로 삼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합동소방훈련

지난해 11월 20일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단양소방서와 함께 2019년 합동소방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빠른 상황 전파 및 대피를 위해 상황전파, 자체진화, 인명피해, 응급처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양공장 자위소방대원들은 각자 주워진 역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각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날 훈련은 무사히 종료되었으며,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은 재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보충할 계획이다.





대형 외장패널용 고성능 시멘트 개발

아세아시멘트는 콘크리트 패널 전문업체인 한필이엔지와 공동으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 가능한 대형 외장패널용 시멘트와 그에 맞는 배합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기존 대형 콘크리트 외장패널 생산 시 투입하던 강섬유의 투입없이도 균열, 비틀림 및 휨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 시멘트 및 최적 배합 기술로 이를 통해 압축강도 100N/㎡ 이상의 초고강도, 고유동, 고내구성을 갖는 고성능화, 경량화 및 경제성을 모두 확보했다. 따라서 얇은 두께의 대형 외장패널 생산과정에서 균열 발생의 제어를 통해 원활한 생산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패널의 운반 및 설치를 위한 인양과정에서 이용되는 인서트의 부착강도 증진을 통해 안전성도 증가했다. 아세아시멘트 측은 "향후 디자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건축물이 증가하는 건축시장에서 외장패널의 요구 성능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고성능 시멘트의 활용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11월 19일 '제57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충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아세아시멘트는 그동안 긴급구조 지원 활동, 김장담그기 행사 시 소방차를 동원하여 식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했다.

플라이애시시멘트 KS인증 획득

지난해 11월 27일 아세아시멘트는 플라이애시시멘트 1,2,3종 모두가 KS^(KSL 521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애시시멘트는 애시 함유량에 따라 1종(5초과~10%이하), 2종(10초과~20%이하), 3종(20초과~30%이하)으로 분류한다. 프리믹스 타입의 플라이애시시멘트는 도로포장용 공사의 탁월한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제품군으로써 영역 확대가기대된다.







MEMBERSHIP NEWS



아세아시멘트, 레미콘 환경성적표지(EDP) 인증 획득

아세아시멘트는 2019년 11월 28일 레미콘 주요제품의 환경성적표지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레미콘 규격은 총 5개(25-21-150, 25-24-150, 25-27-150, 25-30-150, 25-35-150)이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에서 제품생산을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한 인증제도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건축물에 적용하면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되면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세아시멘트는 앞으로도 레미콘 저탄소 제품을 만들기위해 감축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3회 자원봉사자의 날, 충북도지사 표창 수상

아세아시멘트는 2019년 12월 3일 '제13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아세아시멘트는 '대한적신자사 봉사회'를 2012년 7월 결성하였다.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사업 협약에 따른 활동의 하나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4~6세대에게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년 2,000만원을 기탁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국수봉사를 지원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천공장에서는 분기별로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을 통해 생명나눔의 실천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 인근 마을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봉사, '노인요양원 성락원'과 '요한네집' 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내청소, 요양원 외부 주변정리 및 보수작업 그리고 농작물 심기와 김장용 배추 절이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아시멘트의 모범적인 봉사실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표창을 수상했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

제5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제54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3월 20일 본사 지하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 54기 재무제표를 포함한 4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총회 의장을 맡은 김상규 사장은 제54기 회사의 영업실적과 제55기 사업연도 경영전망에 관하여 설명했다.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경쟁력을 높여 다시 매출과 수익의 증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옥계공장, 불시 화재 대응 훈련 실시

2019년 10월 23일, 옥계공장에서 생산본부 직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시 화재 대응 훈련이 실시되었다.

'2, 3호 콜밀 콤프실 화재 발생'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 이날 훈련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

훈련이었지만 실제 화재 발생과 같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신고 접수 및 전파 ▲비상대응조직 임무별 장비 휴대 및 현장 투입 후 화재 진압 ▲응급구조반 가상 환자 구조 ▲고압 살수차 화재 진압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응이 이뤄졌다.

임경태 생산본부장은 훈련 후 강평을 통해 "비상대응절차상 비상대응조직별 임무에 따라 대응이 신속히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한라시멘트는 우리가 지키자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반복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MEMBERSHIP NEWS



한라·아세아, 업계 최대 규모 ESS 상업운전 돌입

2019년 11월부터 옥계공장 내 48MWh급 ESS(전력저장장치: Energy Storage Saving)가 추가로 운용된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한라시멘트는 본공장인 강원도 옥계공장에 24MWh급 ESS를 도입했으며, 아세아시멘트도 올해 8월 본공장인 충북 제천공장에 40MWh급 ESS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로써 한라시멘트는 모회사인 아세아시멘트와 합산해 국내 시멘트업체 중 최대 규모인 통합 112MWh급 ESS를 운용하게 되는 셈이다. 한라시멘트 2기, 아세아시멘트 1기 등 양사가 ESS 운용을 통해 향후 15년간 전력비 절감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약 97억원, 약 40억원으로 최대 137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추산된다.

김정기 전기팀장은 "전력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요소인 만큼 이번 ESS 추가 도입은 회사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하리라 본다"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하에 설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한 팀장, 품질혁신 공로로 산업부장관 표창

2019년 11월 13일, 항만생산팀 이복환 팀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혁신 공로로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취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가품질명장 등 총 439점이 수여됐다.

지난 1995년 입사한 이복환 팀장은 생산팀, 프로세스팀, 품질관리팀 등을 거쳐 현 항만생산팀까지 생산 관련 주요 부서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품질경영 활성화 및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는 물론 시멘트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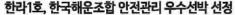
이복환 팀장은 "화합과 혁신을 통해 작게는 팀이 크게는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싶다.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은 지난 8월 개최되었던 '제4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의 시상이 함께 진행되어 동상을 차지한 항만생산팀 오대양분임조도 단상에 올라 영예로운 순간을 함께했다.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사업 후원 감사패 수상

지난해 12월 16일, 한라시멘트가 한국해비타트로부터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 후원과 봉사에 대한 공으로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 '희망드림주택 헌정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라시멘트는 2001년부터 매년 시멘트 전량 지원 및 임직원 현장 자원봉사를 통해 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에는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수여식은 한국해비타트 천안 현장에서 있었던 '희망드림주택 헌정식' 부대행사로 열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진행된 헌정식은 올해 완공된 2개 동 12세대의 주택을 입주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이다. 이곳은 지난 여름 아서아시멘트와 함께 임직원 및 기족50여명이자원봉사에참여해구슬땀을흘렸던곳이기에더욱뜻 고은 현장이다. 행사에는 한국하나라트 유마태이사장을 비롯한 현장 담당자들과 지역 국회의원, 후원사 대표, 입주가정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를 대표해 정미숙 교육홍보팀장이 감사패를 받았고 테이프카팅 입주자열쇠전달 등공식행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시멘트 운송선 한라1호가 한국해운조합 안전관리 우수선박으로 선정되었다. 1989년도에 건조된 한라1호는 총 4,840톤 중량으로 7,600톤까지 선적 가능한 시멘트 운송선으로 연간 약 50만톤 이상의 시멘트를 당사 해송 터미널에 운송하고 있다. 한라시멘트가 운용 중인 8척의 시멘트 운송선 중 유일하게 한라가 직접 소유한 선박으로 탑승 중인 승무원은 16명이다. 이번 선정은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이 선박 운항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한 데 대한 공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한편 한라시멘트에서는 긴 시간 격리된 공간에서 거주해야 하는 선박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인사동정

MEMBERSHIP NEWS

쌍용양회(주)							
구분	발행밀자	성 명	면(직책 및 직급)	명(식책 및 식급)	비고		
승진	2019.12.9	이현준	전무(대표집행임원)	부사장(대표집행임원)			
이동	2019.12.9	추대영	전무(동해공장장)	전무(생산부문총괄,기술연구소장)			
이동	2019.12.9	원용교	상무(영 월공 장장)	상무(동해공장장)			
퇴임	2019.12.9	김철원	상무(국내영업 담당)	계열회사 건출(쌍용로지스틱스 대표)			
승진	2019.12.9	김태년	상무보(회계담당)	상무(회계담당)			
승진	2019.12.9	김광호	상무보(생산부 문총 괄)	상무(영월공장장)			
승진	2019.12.9	조광개	부장이사(환경자원팀장)	상무보(자원순함사업팀장)			
신임	2019.12.9	이동관		상무보(동해 부공장장)			
이동	2019.12.9	편우식	부장이사(동해 생산1팀장)	부장이사(생산기획림장)			
이동	2019.12.9	김창원	부참이사(생산기획팀참)	부장이사(동해 생산1팀장)			
승격	2019.12.9	윤경재	부장(감사팀장)	부장이사(감사림장)			
승격	2019.12.9	양군수	부장(강원지사장)	부강이사(강원지사장)			
승격	2019.12.9	김태완	부장(경북지사장)	부장이사(정복지사장)			
승격	2019.12.9	송지호	부장(생산기획팀)	부장이사(생산기획팀)			
승격	2019.12.9	박종현	부장(동해 업무지원팀장)	부장이사(동에 대외협력실장)			
승격	2019.12.9	이대술	부장(영월 광산팀장)	부장이사(영월 광산림장)			
신임	2019.12.9	김동옥		부장이사(동해 업무지원팀장)			
이동	2019.12.9	나근주	부장(동해 관리실)	부장(광양공장장,부산공장장)			
이동	2019.12.9	김청찬	부장(영월사회공헌팀장)	부장(영월 대외협력실장)			
이동	2019.12.9	권오삼	부장(북평공장)	부장(영월 환경안전림장)			
이동	2019.12.20	김성덕	부장(물산영업소장)	부장(총정지사)			
이동	2019.12.20	김정호	부장(포항영업소장)	부장(경북지사)			
이동	2019.12.20	엄태형	부장(문경영업소장)	부장(경북지사)			
이동	2019.12.20	김동현	부장(전북지사)	부장(건남지사)			
이동	2019.12.20	최인호	부장(경영기획팀)	부장(대의협력Sub-Team)			
이동	2019,12.20	김선기	부장(생산기획팀)	부강(통해 생산1팀)			
승격	2019.12.9	오용택	차장(경영기획팀)	부장(경영기획림)			
승격	2019.12.9	이중석	차장(경영기획팀)	부장(경영기획팀)			
승격	2019.12.9	김도언	차장(경영기획팀)	부장(경영기획림)			
승격	2019.12.9	김대현	차광(경영기획팀 IT Sub)	부장(경영기획팀 IT Sub)			
승격	2019.12.9	김덕훈	차장(법무팀)	부장(법무팀)			
승격	2019.12.9	정창근	차광(중앙지사)	부장(전복지사장)			
승격	2019.12.9	김문옥	차장(해운사업팀)	부장(해운사업팀)			
승격	2019.12.9	김주봉	차장(해시관리팀장)	부장(해사관리림장)			
이동	2019.12.20	신익철	차광(영월 업무지원팀)	차장(감사됨)			
이동	2019.12.20	지성진	차장(동해 관리실)	차장(내부회계 Sub-Team)			
이동	2019.12.20	강중월	차장(인사총무팀)	차광(중앙지사)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인사동정

४८९वं(२)							
구분	발령밀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이동	2019.12.20	이광영	자장(특수 시멘트팀)	차장(강원지사)			
승격	2019.12.9	배종식	차장(동해 설비보전팀)	부장(통해 설비보전팀)			
승격	2019.12.9	김원석	차장(영월 생산팀)	부장(명월 생산림)			
승격	2019.12.9	양승규	차장(기술서비스팀)	부장(기술서비스팀)			
승격	2019.12.9	박상민	차장(인사총무팀장)	부장(인사총무팀장)			
이동	2019.12.20	우병광	차장(동해 업무지원팀)	차장(통해 대외협력실)			
이동	2019.12.20	곽진열	차장(동해 업무지원팀, 대외협력실)	차장(등해 업무지원팀)			
이동	2019.12.20	우용제	차장(부산공장)	차장(동해 관리실)			
이동	2019.12.20	고성문	차장(동해 품질관리팀)	차장(영월 품질관리팀)			
이동	2019.12.20	김종옥	차광(감사팀)	가장(영월 업무지원팀)			
이동	2019.12.20	김준원	차장(경명기획팀)	차장(자금림)			
이동	2019.12.20	김남훈	차장(자금팀)	차강(회계팀)			
이동	2019.12.20	김현동	과장(영월 품질관리팀)	과장(동해 품질관리팀)			
이동	2019.12.20	임주현	과장(동해 업무지원팀,사회공헌팀)	과장(통해 업무지원팀)			
승격	2019.12.9	조용훈	과장(경영기획팀)	차강(경영기획팀)			
승격	2019.12.9	조영식	과장(원주영업소)	차장(원주명업소)			
승격	2019.12.9	한창헌	과장(부산지사)	차장(부산지사)			
승격	2019.12.9	복장빈	과장(생산기획팀)	차장(생산기획림)			
승격	2019.12.9	김기환	과장(동해 삼척광산팀)	차장(통해 삼척광산림)			
승격	2019.12.9	손영준	과장(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	차장(시맨트콘크리트연구팀)			
숨격	2019.12.9	김정훈	대리(경영기획팀)	과장(경영기획림)			
승격	2019.12.9	박상익	대리(충청지사)	과장(충청지사)			
승격	2019.12.9	김지찬	대리(해사관리팀)	과장(해사관리팀)			
승격	2019.12.9	오해선	대리(환경자원팀)	과장(자원순환사업림)			
승격	2019.12.9	박신용	대리(환경자원팀)	과강(자원순환사업팀)			
승격	2019.12.9	홍정선	대리(동해 관리실)	과장(동해 관리실)			
승격	2019.12.9	김행엽	대리(동해 생산1팀)	과장(생산기획림)			
승격	2019.12.9	정의종	대리(동해 북평공 장)	과장(통해 북명공장)			
승격	2019.12.9	김승혁	대리(동해 광산팀)	과장(동해 광산림)			
승격	2019.12.9	김영배	대리((동해 광산림)	과장(통해 광산팀)			
승격	2019.12.9	김영민	대리(동해 설비보전팀)	과장(통해 설비보건팀)			
승격	2019.12.9	박지용	대리(광양공장)	과장(광양공장)			
승격	2019.12.9	신현복	대리(영월 생산팀)	과장(영월 생산팀)			
승격	2019.12.9	김태풍	대리(영월 광산팀)	과장(영월 광산림)			
승격	2019.12.9	김현동	대리(영월 품질관리팀)	과상(영월 품질관리팀)			
승격	2019.12.9	김경수	대리(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	과장(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			
승격	2019.12.9	최승현	대리(인사총무팀)	과장(인사총무팀)			
승격	2019.12.9	노 완	대리(인사총무팀)	과장(인사총무팀)			

MEMBERSHIP NEWS

아세아시멘트(주)							
구분	발령밀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임원승진	2019.12.13.	김원기	이사대우 본사 지원기획본부 연구개발담당 (연구개발팀장 겸직)	이사 본사 기술본부 연구개발담당 (연구개발림장 검직)			
임원승진	2019.12.13.	이동참	부장(1級甲)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팀	이사대우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담당 (레미콘영업팀장 겸직)			
직책승진	2019.12.13.	김용품	상무 본사 영업본부 시멘트 영업담당	상무 본사 영업본부 영업본부장			
겸직	2019.12.13.	임경태	전무 한라시멘트 생산본부장	전무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생산본부장 겸직)			
전적	2019.12.13.	김원국	상무보 한라시멘트 (광양/포항/인천공장 공장장)	이사대우 생산본부 안전환경보건실 (안전환경보건실장)			
직책변경	2019.12.13.	강석일	영업본부 대표이사/영업본부장	영업본부 대표이사(영업부문)	-		
직책변경	2019,12,13.	권오봉	상무 계천공장 공장장	상무 본사 기술본부 본부장			
식책변경	2019.12.13.	최병준	이사대우 제천공장 부공장장 (공무팀감 겸직)	이사대우 생산본부 생산이사 (공무팀장 겸직)			
승진	2019.12.13.	이동주	차장(1級乙) 본사 영업본부 기술영업팀 (기술영업팀장)	부장(1新甲) 본사 영업본부 기술영업팀 (기술영업팀장)			
승진	2019.12.13.	구현모	과장(2 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전산팀 (전산파트장)	차장(1級乙) 본사 지원기획본부 전산팀 (건산림장)			
승진	2019.12.13.	유호영	과장(2数) 본사 지원기획본부 구매팀 (원부자재파트장)	차장(1級Z) 본사 지원기획본부 구매팀 (원부자제파트장)			
승진	2019.12.13.	장진임	대리(3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재무팀	과장(2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재무팀			
승진	2019.12.13.	기택경	대리(3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연구개발팀	과장(2至) 생산본부 기술연구소 (제품연구파트)			
승진	2019.12.13.	조성국	대리(3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총무팀	과상(2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총무팀			
승진	2019.12.13.	최재원	대리(3級)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과장(2級) 생산본부 기술연구소			
승진	2019.12.13.	백주익	대리(3級) 계천공장 기술연구소	과장(2돛) 생산본부 기술연구소			
승진	2019.12.13.	이기훈	대리(3級) 제천공장 공무팀	과장(2級) 생산분부 공무림			
승진	2019.12.13.	김영화	대리(3級) 제천공장 공무팀	과장(2級) 생산본부 공무팀			
승진	2019.12.13.	서석진	대리(3級) 수원공장	과장(2億) 수읨공장			
승진	2019.12.13.	김동우	대리(3級) 수원공장	과장(2월) 수원공장			
승진	2019,12,13,	박중선	4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총무팀	과장대리(348) 본사지원기획본부 총무림			
승진	2019.12.13.	이경훈	4級 세천공장 환경안전팀	과장대리(3분) 생산본부 안전환경보건실			
승진	2019.12.13.	양장준	4級 계천공장 공무팀	과장대리(3월) 생산본부 공무팀			
승진	2019.12.13.	임강섭	4級서울사무소	과장대리(3級) 서울사무소 (아세아 경영지원팀 결식)			
승진	2019.12.13.	이정락	4級 용인공장	과장대리(3歳) 용인공장			
승진	2019.12.13.	이승구	4級 대전공장	과장대리(3歳) 대전공장			
승진	2019.12.13.	무승욱	4級 대전공장	과장대리(3歳) 대전공장			
승진	2019.12.13.	장 훈	4級 대구공감	과장대리(3億) 대구공장			
승진	2019.12.13.	이승우	4級 대구지사	과장대리(3数) 대구지사	- 4		
직책승진	2019.12.13.	원환식	과장 본사 지원기획본부 전산팀	과장본사지원기획본부전산팀(전산파트장)			
식책승진	2019.12.13.	지재선	과장 본사 기획지원본부 구매팀	과장 본사 기획지원본부 구매팀 (보수자제파트장)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인사동정

아세아시멘트(주)							
구분	발랭밀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H]Z		
식책승진	2019.12.13.	박종익	과장 제천공장 공무팀	과장 생산본부 공무팀(기계파트장)			
직책승진	2019.12.13.	조병훈	과장 아세이쉬 경영지원팀	과장 대구공장(관리파트장)			
이동	2019.12.13.	이찬우	부장 본사 지원기획본부 전산팀 (전산팀장)	부장 대전/중부공장(공장장)			
이동	2019.12.13.	감신구	부장 용인공장(공장장)	부장 서울레미콘공장(공장장)			
이동	2019.12.13.	김승준	부장 서울레미콘공장(공장장)	부장 용인공장(공장장)			
이동	2019.12.13.	임연섭	차장 본사 지원기획본부 충무팀 (인사파트장)	차장 생산본부 제천영업소(영업소장)			
이동	2019.12.13.	변동건	과장 본사 영업본부 시멘트영업팀	과장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팀			
이동	2019.12.13.	윤상기	과강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팀	과장 수원공장(레미콘영업)			
이동	2019.12.13.	박태희	과장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팀	과장 서울레미콘공장(레미콘영업)			
이동	2019.12.13.	송원	괴장 계천공장 공무팀(기계파트장)	과장 용인공장(제조파트강)			
이동	2019.12.13.	허강식	과장 용인공장	과장 생산본부 공무림(전기파트)			
이동	2019.12.13.	김장중	과장대리 제천공장 생산팀	과장대리 생산본부 기술연구소 (품질연구파트)			
이동	2019.12.13.	송청근	과장대리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과장대리 생산본부 공무림(기계파트)			
이동	2019.12.13.	서성길	과장대리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과장대리 생산본부 생산팀(생산파트)			
이동	2019.12.13.	양제현	과장대리 계천공장 기술연구소	과장대리 생산본부 TQM 사무국			
이동	2019.12.13.	임성백	과장대리 수원공장	과장대리 대전/중부공장(대전영업소)			
이동	2019.12.13.	권기현	과장대리 수원공장	과장대리 용인공장(제조파트)			
이동	2019.12.13.	연의재	본사 지원기획본부 총무팀	본사 지원기획본부 구매팀			
이동	2019.12.13.	박종표	계천공장 공무팀	생산본부 기술연구소(기술혁신파트)			
이동	2019.12.13.	권순상	수원공장	용인공장(품실관리파트)			
이동	2019.12.13.	권오진	용인공장	수임공장(품질관리파트)			
이동	2019.12.13.	유원범	서울레미콘공장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팀			
이동	2019.12.13.	홍상목	서울레미콘공장	수원공장(제조파트)			
이동	2019.12.13.	김경식	대전/중부공장	본사 지원기획본부 충무림			
이동	2019.12.13.	이주은	서울레미콘공장	수원공장(제조파트)			
겸직	2019.12.13.	김타구	본사 지원기획본부 기획팀(경영혁신파트장)	본사 지원기획본부 기획팀 (기획공사/경영혁신파트강 검직)			
파견	2019.12.13.	임성현	본사 지원기획본부 기획팀(기획공사파트장)	한라시멘트 파견 (기획팀)			
파견	2019.12.13.	정상증	계천공장 환경안전팀(안전보건파트장)	한라시멘트 파건 (안전환경보건실)			
전적	2019.12.13.	이건훈	한라시멘트 인사노무팀	본사 지원기획본부 총무림(인사파트장)			

성신양회(주)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明고		
부서이동	2020.2.1	최병준	성신F&B	본사 경영지원팀	11		
부서이동	2020.2.1	노경욱	본사 경영지원팀	본사 해외사업2림	2"		



- •시멘트 수급총괄 74
- 클링커 수급총괄 75
- 시멘트 수송실적 76

시멘트 수급총괄

(단위: E) Cement Statistics, Actual

(Unit: M/T)

단위:톤)			cement statistics; A		(Unit: M/T	
연도	생산	출하	내수	수 출	수입	계 고
1995	57,260,245	60,796,546	60,012,801	783,745	3,605,455	817,300
1996	59,796,075	62,374,859	61,752,135	622,724	2,989,257	1,223,164
1997	46,091,066	45,854,497	44,615,093	1,239,404	177,719	1,630,349
1998	48,156,548	48,382,348	44,721,156	3,661,192	135,474	1,468,709
1999	51,255,129	51,945,554	48,000,094	3,945,460	517,889	1,296,693
2000	52,046,329	53,055,826	50,054,852	3,000,974	988,514	1,274,521
2001	55,513,831	56,779,522	54,291,800	2,487,722	1,189,119	1,137,333
2002	59,193,796	60,914,062	58,302,257	2,611,805	1,808,936	1,226,436
2003	54,329,760	57,582,977	54,942,318	2,640,659	3,398,228	1,363,371
2004	47,197,201	50,309,917	46,285,524	4,024,393	3,402,978	1,487,465
2005	49,198,785	52,372,958	48,386,021	3,986,937	3,198,322	1,518,522
2006	52,182,351	54,923,979	50,800,755	4,123,224	2,917,093	1,448,306
2007	51,653,418	53,642,874	50,636,800	3,006,074	1,985,460	1,447,279
2008	50,126,341	50,957,374	48,469,983	2,487,391	831,324	1,421,228
2009	47,420,060	48,255,187	45,493,332	2,761,855	772,487	1,362,008
2010	48,249,153	49,085,043	44,601,372	4,483,671	683,400	1,267,687
2011	46,862,240	47,088,926	43,938,835	3,150,091	728,378	1,865,915
2012	47,290,598	48,726,134	45,173,814	3,552,320	760,519	1,041,046
2013	47,047,900	47,630,304	43,706,915	3,923,389	881,681	1,357,236
2014	52,043,695	53,639,091	50,737,202	2,901,889	1,157,505	798,180
2015	56,507,193	57,534,266	55,755,560	1,778,706	1,150,870	1,007,530
2016	57,399,835	57,848,354	56,710,577	1,137,777	854,363	1,440,160
2017	52,092,607	52,393,362	51,236,889	1,156,473	662,000	1,229,041
2018. 1	3,255,145	3,185,158	3,089,452	95,706	54,800	1,388,507
2	3,018,755	2,997,042	2,928,894	68,148	50,400	1,426,250
3	4,472,374	4,760,327	4,692,707	67,620	62,400	1,172,972
4	4,967,847	4,874,454	4,773,834	100,620	48,400	1,279,140
5	4,933,266	5,048,981	4,979,316	69,665	72,400	1,188,162
6	5,044,484	5,081,459	4,958,900	122,559	72,400	1,194,445
7	4,389,937	4,267,741	4,159,028	108,713	42,800	1,315,924
8	3,858,464	3,693,566	3,569,596	123,970	57,200	1,503,419
9	4,058,773	3,982,135	3,915,785	66,350	57,200	1,586,192
10	4,578,865	5,017,016	4,908,420	108,596	58,000	1,162,311
11	5,024,475	5,272,639	5,198,999	73,640	53,000	937,137
12	4,490,222	4,212,844	4,061,958	150,886	33,000	1,229,041

클링커 수급총괄

(단위:톤)

Clinker Statistics, Actual

(Unit:M/T)

계 고	수입	200	1	출하	분쇄	생산	연도
		수출	내수				
836,363	92,629	1,549,815	581,439	1,549,815	50,747,568	52,271,711	1995
1,733,750		562,375	585,454	562,375	52,653,935	54,123,870	1996
1,306,692	4,543	1,584,357	415,837	1,584,357	41,069,858	42,243,043	1997
1,323,682	479,926	1,336,872	526,336	1,336,872	42,622,407	43,789,392	1998
1,098,621	161,644	940,319	791,832	940,319	45,165,115	45,718,729	1999
997,095	95,857	1,644,982	954,877	1,644,982	45,954,372	47,393,315	2000
1,389,970	3,074	905,520	961,934	905,520	44,873,142	50,048,106	2001
1,142,592	69,911	534,701	1,026,198	534,701	51,574,781	51,574,781	2002
1,323,676	21,750	1,420,009	1,162,489	1,420,009	48,251,140	48,251,140	2003
2,031,236		1,945,379	782,611	2,324,147	40,249,698	43,070,969	2004
1,239,211		2,210,070	656,024	2,212,234	41,568,354	42,723,260	2005
1,326,902		2,218,492	680,942	2,221,671	43,983,878	46,293,240	2006
1,607,113		3,494,323	736,949	3,498,120	43,044,487	46,794,815	2007
1,779,715		2,085,021	709,177	2,093,244	42,560,330	44,774,389	2008
1,700,865	A 2011	4,761,909	509,770	4,768,811	40,161,790	44,853,095	2009
1,504,810	2,360	5,481,169	667,733	5,534,427	39,998,746	45,280,804	2010
2,064,439	1,920	5,733,180	844,116	5,735,351	38,728,735	45,154,987	2011
1,551,157	37,365	5,496,334	867,984	6,364,318	39,344,922	44,382,267	2012
1,773,901	15,177	5,601,873	727,014	6,328,887	38,878,711	44,815,936	2013
1,374,106	3.1	4,446,585	978,713	5,425,298	42,865,039	47,015,261	2014
1,436,910	62,616	3,263,899	743,172	4,007,071	45,943,033	49,147,686	2015
1,759,369	36,601	2,251,076	866,029	3,117,105	46,133,944	48,657,426	2016
1,304,453	1.4.4	4,287,200	660,852	4,948,052	41,730,801	45,350,992	2017
2,022,840		212,230	43,014	255,244	2,614,913	2,878,520	2018. 1
2,420,983		212,710	43,119	255,829	2,428,610	3,039,464	2
2,362,236		236,430	59,936	296,366	3,583,797	3,761,479	3
2,131,426		181,100	61,840	242,940	3,957,043	3,907,334	4
2,085,029		182,035	63,522	245,557	3,934,247	4,069,886	5
1,660,932		370,034	61,596	431,630	4,044,935	3,990,872	6
1,778,238		386,756	58,217	444,973	3,498,339	4,002,401	7
1,868,672		448,822	45,585	494,407	3,108,441	3,647,697	8
1,832,439		450,307	47,617	497,924	3,248,971	3,663,044	9
1,898,987		526,222	58,108	584,330	3,672,378	4,265,148	10
1,453,513		542,904	67,746	610,650	4,028,942	4,126,372	11
1,304,453		537,650	50,552	588,202	3,610,185	3,998,775	12

* 클링키 내수는 타사 판매분

시멘트 수송실적

(단위:톤)

Cement Transportation, Actual

(Unit: M/T)

		철도편 By Rail		TICALM	ianem .	-11
연도	수량 Quantities	화차수(량) Number of Freight Car	일평균(량) Daily Averages	자동차편 By Truck	선박편 By Vessel	계 Total
1995	18,475,785	360,296	987	21,321,752	19,361,846	59,159,383
1996	18,002,996	360,060	986	22,373,596	19,069,110	59,445,702
1997	19,323,209	386,464	1,059	22,143,871	19,398,335	60,865,415
1998	15,485,119	309,702	848	14,654,589	17,473,129	47,612,837
1999	15,636,682	312,734	857	15,233,418	19,189,484	50,059,584
2000	16,518,830	330,377	905	17,066,945	20,235,029	53,820,804
2001	17,353,549	347,071	951	17,873,861	21,097,535	56,324,945
2002	18,397,966	367,959	1,008	19,605,097	20,392,703	58,395,766
2003	19,093,658	381,873	1,046	20,515,393	20,488,452	60,097,503
2004	17,465,148	349,303	957	19,574,746	19,593,122	56,633,016
2005	14,741,045	294,821	808	15,361,252	18,873,458	48,975,755
2006	15,182,481	303,650	832	15,493,668	20,361,298	51,037,447
2007	16,048,415	320,968	879	17,289,426	20,968,064	54,305,905
2008	17,160,451	343,209	940	15,699,321	21,366,228	54,226,000
2009	15,806,714	316,134	866	14,615,778	20,587,617	51,010,109
2010	14,596,126	291,923	800	14,240,370	21,765,464	50,601,960
2011	14,486,998	289,740	794	13,808,801	23,595,835	51,891,634
2012	14,409,414	288,188	790	13,672,098	22,281,744	50,363,256
2013	14,753,740	295,075	808	14,534,295	21,726,434	51,014,469
2014	14,038,726	280,775	769	14,788,093	22,268,432	51,095,251
2015	14,747,020	294,940	808	18,967,389	21,344,370	55,058,779
2016	13,473,708	269,474	738	23,158,647	20,964,332	57,596,687
2017	13,237,901	264,758	725	22,564,494	21,909,757	57,712,152
2018	12,346,232	246,925	677	21,757,739	20,704,781	54,808,752
2018. 1	770,990	15,420	514	1,226,642	1,366,760	3,364,392
2	658,547	13,171	439	1,151,171	1,307,186	3,116,904
3	1,122,521	22,450	748	1,879,710	1,693,339	4,695,570
4	1,200,014	24,000	800	2,051,087	1,701,768	4,952,869
5	1,181,128	23,623	787	2,235,074	1,593,977	5,010,179
6	1,195,138	23,903	797	2,233,707	1,837,868	5,266,713
7	1,088,204	21,764	725	1,824,675	1,679,798	4,592,677
8	869,614	17,392	580	1,511,749	1,755,354	4,136,717
9	882,729	17,655	588	1,666,990	1,675,924	4,225,643
10	1,163,502	23,270	776	2,085,008	1,912,099	5,160,609
11	1,175,132	23,503	783	2,202,287	2,143,345	5,520,764
12	1,038,713	20,774	692	1,689,639	2,037,363	4,765,715

아세요?

모두의 환호성 속에 아세아가 있습니다

당신의 즐거움, 공간, 미소...

당신의 행복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라시멘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기술과 품질로 앞서가는 한라시멘트의 핵심가치는 사람과 자연입니다. 사람은 모든 가치의 중심, 자연은 우리가 보존해야 할 마지막 가치입니다. 한라시멘트는 사람과 자연이라는 핵심가치를 기억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건축자재기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건축자재 리더



■ 환경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기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동반자

